

장광설

고토쿠슈스이

고토쿠슈스이
장광설
1902 년 2 월 20 일

長廣舌, 人文社
『長廣舌』이라는제목으로 1902 년 (메이지明治 35 년) 2 월 20 일에인문사
人文社에서간행되었다. 같은해에 『廣長舌』 (中國國民衆書社역, 上海商
務印書館) 이라는제목으로중국어로번역출간되었고, 1912 년에자판되었을때
는 『社會主義長廣舌』 이라는제목으로소개되었다.

kr.theanarchistlibrary.org

1902 년 2 월 20 일

차례

울시한편으로마음을기록하여제목을대신한다	4
19 세기와 20 세기	5
혁명이도래한다	7
파괴주의인가폭도인가 (사회주의의실질)	8
금전을폐지하라 (사회주의의이상)	10
위장胃腸의문제 (사회주의가시급하다)	13
최근의노동문제 (사회주의의적용)	15
제국주의의쇠운	19
암살론	22
무정부당제조	24
위험한국민	26
월필정책	28
일본의민주주의	30
외교상의비입한국	31
재정의대혁신	34
호전적인국민인가	36
후대받는병사	37
비전쟁문학	38
비정치론	41
이상없는국민	42
마비된국민	43
목적과수단	44
의무감	46
노인의손	47
문명을모욕하는자	48
이토후작의성덕	50
평범한거인	51
『수신요령』을읽다	52
자유당제문祭文	55
세모歲暮의고통	57
신년의환희	58

선연회방법, 음식의양, 시간제한, 급사들의안배와알선을개량하여모든것에서 일정한규율, 의식이있게해야한다. 이것들이품위와질서를지키는데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그런데서양요리점에서열리는연회는어느정도이이상에가까운것을느낀다. 우리들은굳이음식이일식인지중식인지양식인지를묻지않지만, 방법에대해서는모두서양요리점과같은것을희망함과동시에여기에참석하는신사들이스스로충분히근신하여행동할것을권고한다.

(〈宴會の不完全〉,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1 월 14 일)

고등교육의권리	60
연애문학	61
자살론	63
불완전한연회	65

씩자살자가생기고, 우등하고건전한인간만남는다면, 일본도크게부강해질것이다.

(〈自殺論〉, 「千代田毎夕」 1900 년 (메이지 33 년) 10 월?)

울시한편으로마음을기록하여제목을대신한다

(書懷一律代題詞)

한주정뱅이가고뇌에차서머리를긁적이며하늘에묻고자
(一醉搔頭欲問天)
높은누각에서또다시글로번돈을내던지네.
(高樓又賣擲文錢)
눈속의달빛을받아맺어진인연은삼생이 지나도다하지않네.
(雪月三生未了緣)
땅을가르고떠들썩하게노래하는소년의호방함과,
(斫地浩歌少年俠)
꽃을들자미소짓는미인의깨달음이며,
(拈華微笑美人禪)
거기에따로중횡으로움직이는허가있으니
(箇中別有縱橫舌)
한가로이고향산의두고랑밭으로물러나네.
(閑却故山二頃田)

슈스이덴포지음 (秋水傳甫艸)

불완전한연회

요즘세상에다수가참석하는연회가품위와질서를갖추지못하고어수선하고살풍경하니정말놀라지않을수없다.

송별회든친목회든피로연이든축하연이든, 기타어떠한이름으로부르든, 이것은단지이름뿐이고내실은거의망각되지않은것이없다. 그들은각자마시고취할뿐이고멋대로노래하고어지러이춤주고농담주고받을뿐, 다른것을모른다. 그러므로마시고취하고멋대로노래하고어지러이춤주고농담주고받을수없는사람은연회에참석할자격이없는것처럼여겨진다. 예를들면송별회를열어볼까. 만약중요한주빈인데침묵하는사람이라면당장에배제되어돌아보는사람도없다. 또는술잔치가무르익어많은사람들을초대한주인이먼저취해버리면, 손님은할일이없어무료해지는경우가많다. 심한경우에는친목회석상에서옆에앉아있는사람에게는한마디도걸지않고오로지유녀遊女들과희희덕거리고방약무인하면서은근히부녀자의환심을샀다고자랑하는자가있다. 유녀패거리들은모두서로아는자앞에몰려가서다른사람을대단히쓸쓸하게만들기를바람먹듯이한다. 이와같이하여대개의연회는모두매우난폭하고난잡한추태를보이니, 열등한네다섯명을제외하면모두불평과불쾌함으로끝난다. 아아, 이것이연회의목적인가.

마시고또취하고자한다면혼자서마시고취해야한다. 어지러이춤주고멋대로노래하고자한다면혼자서어지러이춤주고멋대로노래해야한다. 하지만만것은애초부터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춤주고노래하는것을목적으로한장소와시간이되지않을수없다. 송별이나친목등특수한목적이있는교제위주의연회에서는목적에어긋나지않을만큼체면을갖추지않으면안된다. 품위와질서를지키지 않으면안된다. 교제상예의와유쾌함이서로따르지않으면안된다. 일단잔만잡으면일장의연설조차도농담속에묻어버리는것은신사가가장부끄러워해야할일이다.

이상과같은점에서우리일본요리점에서열리는연회는우리나라의교제사회가하등한것임을드러내는가장치욕스러운것이다. 이악습을고치고자한다면, 우

며칠전오쿠마시게노부씨가어느신문기자에게이토히로부미씨의방탕함도 병 탓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들 이들은 바로도 확실하 그렇다. 이토씨가 닥치는 대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제 생활의 필요 조건이 되었다. 술과 여자를 끊는다면 후작은 한낱 늙어 빠진 늙은이가 되고 만다고 어떤 유명한 의사 말했다고 한다.

자살이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결과며, 국가를 위해서 우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언할 수 있지만, 자살이 도덕적 죄악인가에 대해서는 연구할 만한 문제다.

자살이 부도덕하다는 것은 문명인 행세하는 선생이 흔히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서구 국가들에서도 아직 논쟁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 『효경』에는 “내 몸과 피부와 머리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헐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은 아무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도 자살은 불효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자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룬다”고 하니, 인과 효는 서로 모순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양에서 자살을 부도덕하고 죄악이라고 보는 설로서 유명한 것은, 인간의 목숨은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생사는 오로지 신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설령 인생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라 해도, 과연 자살이 신의 뜻과 다르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동서고금의 종교가 대개 자살을 장려하고 있다. 구약성서에도 신약성서에도 자살을 비난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고대에는 기독교도들의 자살이 흔한 일이었다.

본래 자살 죄악론자는 자살은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거스른다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즐기고 죽음을 슬퍼할 터이다, 또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이상 그 사회를 위하여 다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 이것을 다하지 않고 멋대로 자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논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인생은 반드시 자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의약의 진보는 자연을 심하게 거스르는 게 아닌가. 또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건강한 것은 사회의 골칫거리니, 이들의 자살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불치병에 걸린 자 따위는 얼른 자살하는 것이 좋다고 논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살을 신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결코 부도덕한 소행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지만, 건전하고 우등한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자살자는 대단히 나약하거나 대단히 바보거나 미치광이다.

사회는 경쟁에 의해 진보한다. 우승 열패의 자연 도태가 이루어 지므로 진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 장안에 설 수 없는 불구자는 빨리 자살해 버리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이런 불구자 중에는 단지 세습된 부와 위계로 보호 받으며 경쟁장 밖에서 안일을 탐하는 자가 많다. 이러한 자가 오히려 신과 사회에 대한 죄인이다. 적어도 나체로 밀어내서 독립자 할 수 없는 자는 죽는 편이 낫다.

일본에서 자살자가 많은 것은 불건강한 인간이 많은 증거로 슬픈 일 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자를 굳이 살려 두어도 소용이 없다. 이제부터 해마다 5 만, 6 만 명

19 세기와 20 세기

19 세기의 천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정신을 남겼는가. 20 세기의 세월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물질을 제시할 것인가.

역사는 인류 진보의 기록이다. 인류는 세대를 거듭하고 세월을 지나면서 지능과 도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축적했으며, 정신적 지위를 높이고 물질적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찍이 잠시 도취는 일이 없었고 결코 물러서는 일도 없었다. 무릇 제행(諸行)은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고 융성한 것은 반드시 쇠퇴하지 않는 것이 없다. 개인에게는 확실히 그렇다. 하나의 국가나 하나의 국민에게는 확실히 그렇다. 그것들은 부패하고 타락하며 약해지고 쇠퇴해서 사라진다. 그렇지만 세계 전체를 보라. 인류의 정신, 생활, 종교, 정치의 상태가 얼마나 급속히 진보하고 개선되었는가. 물이 증발하는 것을 보고 양이 줄었다고 하지 말라. 증발한 물은 이득고비와 이슬이 되어 오곡이 자라는 것을 돕지 않는가.

그렇다. 예로부터 문명은 결코 한 제왕, 한 국가, 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인류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진보해 왔다. 문명이 빛을 비추는 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게 보충된다. 이로써 보아야 한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니키아 문명은 잠시 제쳐두고, 그리스 문명은 페리클레스(Periklēs, BC490?~BC429) 전성시대에만 전유수(專有)된 것이 아니었다. 코딱지만한 유럽에서만 전유된 것이 아니었다. 로마는 그리스 문명의 정수를 지속시켰고 그것을 개선하고 확장하였으며, 18 세기에서 19 세기에는 유럽 뿐만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로, 동아시아로, 아프리카의 남북 양 끝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보와 확장 방법 또한 마치 물건이 공중에서 낙하할 때 지상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력과 속도가 커지듯이, 올해는 작년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현저히 가속화되어, 한 종족의 문명은 여러 국민의 문명이 된다. 여러 국민의 문명은 세계 전체의 문명이 되려고 한다. 그리하여 19 세기의 진보와 확장 속도는 실로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생각건대 20 세기의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빨라질 터이고, 그 첫해에 미개국이나 야만국이라는 이름이 지구상에서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히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더욱더 진전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음식, 옷, 기구의 성질, 상태, 효용이 점차로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문명이 미치는 판도가 확장됨에 따라, 또한 인류 전체의 복리 실현이라는 목적의 완성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천명의 복리에 적합한 문명은 1 억명에 적합할 수 없다. 그리스·로마의 문명은 노예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럽의 문명은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18 세기 말의 문명은 귀족 전제주의를 허용했다. 19 세기의 문명은 귀족 전제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제국주의라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는 나아가 19 세기 후반 문명의 정신인 개인 자유의 이데올로기를 압도하여 굳이 그것을 대신하려 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은 것이 내일 그른 것으로 바뀌는 느낌이 대단히 강하게 든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이

것은 인류가 진보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길이며, 국민적 문명을 세계적 문명으로 만드는 치하할 만한 경향이라고.

19세기 문명이 개인 자유주의로 귀족 전제주의를 타파하여 인류를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한 공로는 참으로 위대하다. 이것은 문명 진보가 한 차례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하지만 인류 문명의 목적은 개인의 복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리에 있다. 우리들의 진보는 자유 획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평등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의 인민 가운데 재빨리 개인 자유주의에서 국민적 통일 결합 운동으로 나아가자는 실로 부지불식간에 그 기반을 굳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국민 통일주의에서 다시 확대하여 제국 팽창주의가 된 것을 보면, 그것이 결국에 또 다시 번하여 세계 통일주의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니 세계 통일주의는 현재 문명의 조류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비록 19세기 자유주의 가정권의 불평등을 타파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제 불평등을 타파하지는 못했다. 자유 경쟁 제도는 오히려 경제 불평등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하층 노동자는 그 폐해를 견디지 못한다. 일찍이 그들이 결합하여 정치 적 질곡을 벗어난 것처럼, 이제 다시 자본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적 결합주의를 개시했고, 더욱이 세계적 운동으로 한 걸음 나아가 자본가와 활발히 부딪치게 되었다. 자본가들 역시 상호 경쟁의 폐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본을 합칠 필요를 느껴, 이른바 트러스트를 조성하여 해외 시장을 찾아 제국주의 자를 자칭하는 정치가와 손잡고 국민적 팽창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들이 개인의 자유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국민적 경쟁으로 나아가다가, 또 다시 국민적 경쟁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극에 달하여 결국 세계적 결합 통일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대개 교통이 발달하고 문명이 미치는 판도가 확장됨에 따라 세계의 생활이 하나 해 관계나 물가나 지식이나 도덕이 점차 평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리하여 유럽의 정치가 홀로 무력을 자랑하지 못하고, 서구의 자본가는 홀로 값싼 동양 노동자를 이용하지 못하니, 포악한 마음은 박애로 바뀌고, 경쟁의 수단도 협력의 결과로 바뀌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에서 국민주의로, 국민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제국주의에서 세계 평화주의로 바뀌는 한편으로, 사회 경제적으로는 자유 경쟁주의에서 자본가 합동주의로, 자본가 합동주의에서 순수한 세계적 사회주의로 바뀌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할 것이다. 이리하여 아마도 인류 문명 진보의 역사가 비로소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대단히 고맙구나, 19세기여. 너는 정치적 자유의 복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나아가 제국주의를 산출하여 자유 경쟁의 폐해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제국주의는 그저 우리가 세계적 사회주의에도 달하는 하나의 계단일 뿐, 우리들은 20세기 전반에 세계적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의 폐단을 모조리 없애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얼마나 희망찬 일인가.

(〈十九世紀と二十世紀〉, 「日本人」 1900년 (메이지 33년) 12월 10일)

자살론

일본에서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은 자살자가 많다는 것이다. 살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1천명 남짓이지만, 자살자는 해마다 7천명 이상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1898년에는 거의 8,700명에 달했다.

일본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살이 명예를 의미했던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살은 궁핍하거나 회한에 찬 나머지 발생하는 것뿐이어서, 결국 의지가 박약함을 나타낸다. 원래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결코 의지가 강한 자는 없다. 자살자가 많은 나라는 결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자살자가 1년에 9천명에 가깝다는 것은 국가의 앞날이 우려할 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살자가 많은 것은 정신적으로 국민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이 피폐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정치로도 군비로 도의 회로도 치료할 수 없다.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상공업이 번성하는데 달린 문제다.

목을 매서 죽는 자살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 약간 흥미롭다. 자살자가운데 과반수는 교살이다. 그다음이 투신 자살, 그다음이 칼이고, 음독 자살이나 총같은 것은 매우 적다. 아마도 교살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에 때문일 것이다. 투신 자살도 별로 필요 없는 방법이지만, 동절기에는 별로 많지 않아 수치가 낮다. 이제 죽으려는 몸이라도 추운 것은 싫은 것 같다. 극악은 의 학생이나 직공의 동반 자살 정도에 한정된다. 그래도 해마다 100명 내외는 있는 것 같다.

자살은 확실히 일종의 병적 작용으로, 자살자를 많이 내는 국민은 결코 건강한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예전에는 무사가의 로움을 위해 자살한다고 해서 대단한 명예처럼 생각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불완전한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저지른 불의나 죄악이 자살로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착각이라도 그렇게 믿으면 그나마 낫지만, 대부분은 단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번뇌한 나머지 발광하거나 발광하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자살하므로 어쨌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간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병적 작용이 존재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죽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해도 남에게 저지를 당해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신에게 홀린 것이리라. 대체로 병적 작용만큼 이상한 것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외에 절도 병이라는 것도 있다. 일종의 호기심 curiosity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고 한다. 루소가 소년 시절에 별로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데도 절도를 한 것이 『고백록』에 쓰여 있다. 이것도 확실히 병적 작용임에 틀림없다. 또한 연회에 가서 잔이나 술병이 나기 타 다양한 것을 소매나 품에 숨겨 가지고 나 오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일종의 호기심이 끓어 올라 거의 병이 된 경우다.

그리하여이것을해석하고설명하고옳는데, 심한경우에는이것을장려하는필법을 사용하는자도있다. 그리고이것을구독하는것은대개는미혼청소년들이다. 아직심하게세상의풍파를만난적이없이공상에공상을꿈꾸고물들기쉬운것이마치 현실과같은청소년들을꿀과같이달콤한색정으로유혹하여신성한사랑이라일컫고고결한사랑이라부추킨다. 그리고교묘하게우주, 자연, 인생등고상한문제를 끌어들여연애라는두글자와섞어서권하는데, 이것으로말을만드는편의를제공하지않는것이없음을안다면, 청소년의성정이나날이타락하여문틈으로작약을 넣어두는것이크게유행하는것을굳이수상하게여길것도없다.

우리들은문학이당장에권선징악의도구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아니고, 소설과시가를당장에윤리교육의용도로제공하자고하는것도아니다. 하지만 문학과미술을업으로삼는사람의이상은반드시선을추구하지않으면안되고미를 추구하지않으면안되며진을추구하지않으면안된다. 오로지독자의쾌감을자극하는것을능사로할뿐이라고한다면, 이것은옛날에게사쿠작가의일에지나지않는다. 라쿠고가의일에지나지않는다. 강석사의일에지나지않는다. 이것이미술가나문학가다운것이겠는가. 하물며그들이짓고옳는것이날로많은청소년을타락시키고부패하게만드는것은의심할여지없는사실이야닌가. 남의자식을해친 죄악은도저히면할수없다.

전문미술가나문학가뿐만아니라신성한종교계에있으면서심한경우에는공공연히여성을조종하는방법을잡지에게재하거나생식기의작용을여학교강당에서강연하는자가있다는것은언어도단의행위라고하지않을수없는데, 최근문예계취향이여기에이르니깊이슬퍼하지않을수있겠는가.

하지만우리들은함부로당국관리무리에게언론출판단속을엄중히할것을촉구할수없다. 왜냐하면무식한그들은도저히옥석을가리지못하여종래에항상문예의진보를저해하는결과를낳았기때문이다. 다만우리들은세상의정의를품고부패와타락을개탄하는인사가추하고외설적인문학에맹렬히사회적제재를가할필요를느낀다.

(〈戀愛文學の害毒〉,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7 월 7 일)

혁명이도래한다

옴기가쌍이고아득한후에는곧한줄기별이다시온다. 장마로갑갑한후에는곧이글거리며타오르는여름햇살이라. 자연만물이탄생하고자라는것은실로이러한이치가있기때문이다. 사회에혁명이존재하는것도또한이와같다.

혁명이라는말을듣고당장에이것이불경하다고오해하지말라. 이것이모반이라고오해하지말라. 이것이시해라고오해하지말라. 이것이공화정치며무정부라고오해하지말라. 혁명은크롬웰의전유물이아니다. 워싱턴의전유물이아니다. 로베스피에르의전유물이아니다. 총성이울리고선혈이낭자한것만은아니다. 시민평등은사회적인일대혁명이었다. 왕정복고, 대의정체의성립은정치적인일대혁명이었다. 18 세기과학적산업기계의발명은산업상의일대혁명이었다. 시해를하지않더라도혁명은곧혁명인것이다. 철혈을사용하지않더라도혁명은곧혁명인것이다. 그런탓에페르디난트라살은“혁명은일종의전복이다. 혁명은완전히새로운차원의이념이 기존제도나조직을대신하려고할때일어난다. 그리고강한힘을사용하는것은결코혁명의필요조건이아니다. 그에반해개혁은지금의제도와조직을유지하면서다만그것을발달시켜더욱더융성하고유효하면서도정당한결과를얻게하려는것이다. 그리고어떤수단을동원하는지는그다지중요한문제가아니다. 개혁이반란과유혈로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혁명이오히려아주평화롭게일어나는경우도있다”고했다.

혁명이정말로새이념이옛제도를대신하기위하여일어나는것이라면, 오늘날우리나라의정황은더욱더일대혁명의기운에놓인것은아닐까. 아니일대혁명이이미아주평화롭게일어나고있는것은아닐까.

첫번째로정치를보라. 부패가극에달하지않았는가. 그들내각이행하는바, 중의원이행하는바, 귀족원이행하는바, 각정당이행하는바를보라. 완전히번벌의노예가되어버리지않았는가. 완전히번벌의사리사욕에봉사하는기구가되어버리지않았는가. 그리하여일면에서보면, 우리나라의정치조직은사실상결코자유 의제도가아니고대의여론의제도도아니며, 바로과두전제의참상에빠진것이아닌가. 이현실을보고어찌더욱진보된새이념으로대체하는것이시급하다고느끼지않겠는가. 그리고이것을이룩하는것은일대혁명사업이아니겠는가.

다음으로 산업경제의 실상을 보라. 유럽의 산업혁명 여파가 도도히 우리나라에 침입하여 생산비용은 극도로 줄어 들었고 생산액은 극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오로지 일부에 퇴적되어 사회 일반이 혜택을 입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또 보라. 빈부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공황이 점점 더 빈번해져 간다. 투기가 점점 더 성행한다. 분배가 점점 더 나빠진다. 우리나라의 상업은 이제 완전히 일대도박장이 되어 버렸고, 정당한 사업가를 수용할 땅은 점차 사라진다. 우리들은 결코 생산의 대규모화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대규모화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오늘날 자유경쟁제 아래에서는 규모가 오히려 사회 인민을 몹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탓에 진정으로 산업 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반에 미치게 하고자 한다면, 더욱 진보한 새 이념에 따라 산업 경제 조직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일대 혁명 사업이 아닌가.

나아가 사회 풍습과 교육의 실상을 보라. 이토 히로부미가 계급 제도를 정하고 나서 유신 혁명의 목적인 사민 평등주의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오늘날 팔짱을 끼고 놀고 먹는 귀족은 유유자적하며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니 본받을 점이 없고, 사회 풍속을 나날이 퇴폐로 몰고 갈 뿐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족 전제의 제도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되고 형식적인 충군 애국 네글자를 교육의 이념이나 뼈대로 삼은 결과, 교육의 근간이 몹시 굴절되고 발달이 완전히 저해되어 사상계의 고루함과 혼미함이 거의 수백 년 전으로 퇴보한 것 같다.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영속할 수 있는가. 또한 영속시켜야 하는 현상인가. 아니, 오히려 진보한 새 이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급무임을 느끼지 않는가. 그리고 이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일대 혁명의 사업이 아니겠는가.

혁명은 본래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역지로 촉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주의자가 말한 바와 같이 “혁명 은 진보의 산파다.” 진보는 항상 혁명을 기다린다. 혁명이 있는 곳에 진보가 생긴다.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실상이 이미 혁명의 기운이 임박해 있음을 안다. 다만 그것을 선험의 혁명으로 만들지, 평화의 혁명으로 만들지는 국민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다.

(〈革命論〉,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5 월 18 일)

파괴주의인가 폭도인가 (사회주의의 실질)

고운 구슬이 어둠 속으로 던져지면 사람들은 모두 칼에 손을 댈다. 지금 우리나라들이 사회주의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 그들은 아직 사회주의의 진상이나

그렇다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사립 고등학교를 장려해야만 한다. 사립 학교에 관립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여 오로지 관립으로만 향하는 일념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렇다. 대체적인 방침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상세한 것은 논할 기회가 필요하다.

(〈高等教育の拒絶〉,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9 월 6 일)

연애 문학

어떤 미인이 있다. 부호의 아내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해 화가 모씨를 연모했다. 하지만 화가는 자신의 여동생의 오랜 약혼자다. 그리고 그녀의 의붓 딸도 이 화가를 연모하여 모녀와 자매가 한 남자를 두고 은밀히 서로 다투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그집에 기식하던 일개 서생이 처음에 하녀와 통하고 나아가 미인 모녀를 연모하여 마침내 주인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은 최근에 저명한 작가 모씨가 쓴 소설의 줄거리다.

독자들이여. 이와 같은 문학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어떠할까. 특히 지금 청소년의 심성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어떠할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몸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인륜을 혼란에 빠뜨리는 추하고 외설적인 이야기다. 이것을 노골적으로서 술하면 누가 눈살을 찌푸리고 구토하지 않겠는가. 누가 이러한 이야기를 가정애들여 놓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자 하겠는가. 하지만 인륜을 저버리고 추잡한 내용을 담은 소설이 공공연히 신문 잡지에 광고되고 비평되어, 세상의 청소년들이 앞다투어 환영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다름 아니다. 인륜을 저버린 추잡한 사건 조작 작가의 교묘한 표현으로 묘사된다. 여전히 독자에게 어느 정도 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빈축과 구토로 이것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쾌감을 느끼며 이것을 읽는 해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단지 모작가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연애 문학의 폐해가 심각한 것을 개탄하기 때문이다. 보라. 간다 神田 나 혼 고 本郷의 잡지가 게에가 보라. 거기에 배열되어 있는 서적의 태반은 연애, 부인, 정화 情話 등의 글자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내용 은 고급의 정화 情話다. 연애의 시가다.

고등교육의권리

최근에우리문명의진보와국가의부강을위해통탄해마지않는큰문제가있다. 이문제는나날이우리를압박하여해석이시급하다. 무엇인가. 바로국민이고등교육을거절당하는것이그것이다.

고등학교입학을희망하는자는해마다늘어난다. 그런데입학허가를얻는자는항상수험자의 10 분의 1 에못미치고 10 분의 9 는거절당한다고한다. 이유를물으면, 단지고등학교수가적고설비가부족하여다수를수용할수없다고하면서시험성적이가장높은학생을뽑는다. 그러므로평소에아무리학력이우수하고품행이방정하고자금에여유가있어도, 시험때잘못해서 1 등을하지못하면낙제의불명예를얻을수밖에없다. 가령 100 명가운데 10 명의합격자를낸다고하면, 10 등과불과 1 점미모자라도불행한운명에항복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그렇다. 이것은진정으로불행한운명이며, 전혀그사람의죄가아닌데도앞날이완전히끊인다.

우리들은근면하고학력이우수한학생이시험을여러차례보고도합격하지못하여낙담한나머지사기를완전히잃고결국타락한것을보았다. 우리들은또한한학생이죄를자기의학력부족에돌리며과도하게공부를한결과, 심신이쇠약해서폐병에걸린것을보았다. 이것이단지한사례에지나지않는다고한다면, 입학거절이장래우리국민의발달에영향을미칠때단은대단히걱정스러운것이아닐까.

국가는공공의복리를위하고문명의진보를위하여반드시국민을교육시킬책무가있다. 가령국민이전혀교육을받을뜻이없어도백방으로장려하지않으면안되는것은물론이다. 아동의소학교입학을강제하는것은이러한이유가아닌가. 이미소학교교육을강제하고일반에게중학을개방하여충분하고등교육을받을자격을양성해놓고그후에그것을거절하는것은매우잔혹할뿐만아니라, 대단히몰지각하다. 생각해보라. 국가가굳이장려하지않는데도고등교육을받려고경쟁하는사람이나날이 많아지는것은국가의경사다. 그런데도거절하고그것을가로막는것을보면통탄스럽고한심할뿐이다.

아니, 우리국민은상당한학력을가지고상당한학자금에있는이상, 균등하게고등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지금우리청년의 10 분의 9 는교육사회가무지하고교육행정당국이무능한탓에중대하고신성한권리를박탈당하고있지않는가. 그리고우리국가는그로인해해마다 10 분의 9 의학자를잃고있지않는가.

우리들은지금대학들이항상우리나라의학술을독점하여고등지식의보급을막는경향이있음을개탄한다. 하지만이것은그나마괜찮다. 고등학교와대학교에들어갈훌륭한자격을갖춘사람이항상불운함에울수밖에없는것이참으로견디지힘들다. 입학허가하기위해서가아니라오로지거절하고떨쳐내기위해서시험을본다는사실은참으로견디기힘들다. 이것이어찌세상을다스리는군자가숙고해야하는바가아니겠는가.

실질이어떠한지돌아볼틈은없고단지는과귀에익지않은탓에들떠서외치며말하기를, 사회주의는파괴주의고사회당은폭도라고한다. 이를마치전염병을대하듯두려워하고백과전갈을대하듯꺼린다. 아아, 그것이어찌파괴주의인가, 그것이어찌폭도인가.

예로부터적어도사회의진보를추구하고개혁을희망하는논의와운동이라면하나같이어느정도파괴적수단에기대지않는경우가없었다. 그런데오로지파괴적수단에기대었다는이유만으로완전히최악시한다면대개천하에새로운것으로옛것을대신하는일을수행하는사람가운데누가예외가될수있겠는가. 그렇지않은가. 가령여기에이렇게말하는사람이있다고하자. 당신의가옥은썩었다, 마땅히그것을개축해야한다, 당신의옷은티끌과먼지로가득하다, 마땅히그것을세탁해야한다고말하는사람이있다면, 이것을모조리파괴주의로여기고폭도로여길것인가.

하지만세상일에어두운무리, 겁을내며잠시의안락함을탐하는패거리가진보와개혁을너무혐오하여, 새이념을부르짖는사람을만나면일단열핏보고파괴주의라규정하고폭도라고부르며백방으로박해를시도하지않는경우가없는것은, 동서고금으로কে를같이한다. 그런탓에일찍이천황을섬기고막부를타도하자는논의가일어나가, 막부말기의관료들은파괴주의라며꾸짖고그것을주장하는사람을폭도로몰며박해를일삼았다. 안세이의의옥에이르러서는진시황이래의비참함이얼마나극에달했는가. 일찍이자유민권설이일어나자, 번벌정권의관료들은그것을꾸짖어파괴주의라규정하고자유민권을주장하는사람을폭도로몰며박해를일삼았다. 보안조례공포에이르러서는나폴레옹 3 세이후의황포함이얼마나극에달했는가. 하지만보라. 우리일본국민으로하여금봉건지배계급의질곡을벗어나사민평등의경지에들어서고, 전제억압제도를버리고입헌대의의치세를만나국위, 국광을태평양앞바다에찬연히빛나게한것은바로당시의파괴주의, 폭도가아니었겠는가.

무릇세상의허다한새이념, 새운동가운데일시적인파괴주의나폭도에 지나지않은것이있다면, 그성질이과연진정으로사회의진보와개혁을위해시급하고적절한것이겠는가. 당시일반인민의눈과귀에익숙하든익숙하지않든간에, 당장이라도넉리퍼질듯한기세가팽배하여마치커다란제방을무너뜨리는것처럼, 수천의공격, 수만의박해가결국에아무런지도않은것이사회의진보와개혁이다. 기독교의개혁이그랬다. 니치렌종日蓮宗의발흥이그랬다. 유럽대륙에서자유제도의창립이이러했다. 국물법폐지운동이그랬다. 선거구개정안이그랬다. 노예금지운동이그랬다. 아니, 숙된인사들이숙된주장으로공격하고박해해도아무런지도않았을뿐만아니라, 공격과박해가한층가혹해질수록반동또한한층거세져서오히려그들의성공을재촉하고, 나아가그성공의여세가예측불허의참상을낳는일도있다. 루이 16 세는그래서참수당했다. 메테르니히는그래서쫓겨났다. 한심함의극치다.

우리들은당분간사회주의의본질이과연오늘날의사회상태에서의적절한지
그렇지않은지를다투지말아야한다. 그렇지만유럽과미국양대륙에서사회주의
가아무리가혹한진압에직면해도파발을두어명령을전달하는것만큼빠르게퍼져
나가고불꽃들이비를맞으면서자라는것처럼세력이커지는형국을보면, 대단히
닭지않았는가. 그런데도우리국민가운데완고하고몽매하여새로운것을싫어하
는무리들은막연히이것을파괴주의라고부르고폭도라부르거나, 겁을내며안락
을추구하는인사는이에부화뇌동하여진압과전멸에바빠서시간이부족할정도다.
심한경우에는최근에도동문제해석을위해분주히논의하는사람들조차도대개는
사회주의를입에담기를꺼리는데, 사회주의를외치면중상류사회의동정을얻을
수없어서운동이매우곤란하기때문이라고말한다. 이리하여사회주의에쏟아지
는공격과중오, 기탄은결국은급만치도사회주의의진상과실질여하와관계없이
오로지무식함과고루함, 안락함에안주하는것이다. 진정으로천하의기운에응하
는사회주의자라할수있겠는가. 넓은가르침의전파는그들이결코방해할수있
는바가아니라하더라도, 그들이말하는바는오히려문명국민으로서일대치욕이아
닌가. 나는우리국민이사회주의를중오하고박해하기전에우선깊이연구하고익
힐것을갈망한다.

(〈破壞主義乎亂民乎〉,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9 월 13 일)

금전을폐지하라 (사회주의의이상)

병균이사람의혈액에섞여점차로육체를값아먹는것처럼금전이세상에서무
한만능의세력을떨치는한, 세도世道는갈수록피폐해질것이다. 풍속은갈수록
쇠망으로치달을것이다. 인심은갈수록부패로향할것이다. 그리하여사회는결국
망하여멸망에이르지않고는끝나지않으니, 공창제폐지를주장하는자여, 신사의
타락을분노하는자여, 풍속개량을부르짖는자여, 도덕의왕성함을촉구하는자
여, 우리들은오늘날과같이한편의도덕서를얻든한나절의설교를들든, 여전히금
전을필요로하는날에는여러분의천마디만마디교훈도완전히무익함을알것이다.
누구든스스로원해서천한기생이되는자는없을것이다. 누구든풍속의개량, 도덕
의왕성함을바라지않는자는없을것이다. 그런데도그렇게될수없는까닭은오로

도즐거운법이다. 돈이있기때문이다. 좋은웃을입기때문이다. 흥분紅
粉으로화장하기때문이다. 돈없고좋은웃도없고흥분이없는사람도즐거운
법이다.

나와남과사회가죽음을향하여 1 년을다가가서모두흐르는세월의빠름을깨
달지않을수없는데도, 기꺼이새해를즐길수있는까닭은무엇일까. 다름아니다.
이때야말로나와남과사회가모두함께정의롭고자유롭고평등할수있기때문이다.

사람은각각양끝을가진다. 세상에완전한선인이없다면또한완전한악인도없
다. 다만평소에는수많은경쟁, 수많은유혹, 수많은흥분을접하기때문에대개선
을드러내기도하지않고악도드러낸다. 선악이항상서로싸우고이해가항상서
로다투는것이거의평생동안계속되어꿈임이없다. 그런데이경쟁, 유혹, 흥분이
제야의백발번의종소리와함께완전히멎고, 만인은허심탄회해진다. 마음이넓고
몸이편안하여이해관계가꼬이지않고, 이로써움직이고생각하고듣고보고말하
는것이오로지선이있고정의가있을뿐이다. 천하에추호도부정과비리가드러나
지않는다. 새해의즐거움이어찌당연하지않겠는가. 사람과사회가이미정의로운
데어찌자유롭지않겠는가. 그렇다. 새해의천지만큼자유로운것은없다. 새벽닭
이한번새해를알리고일주일동안금전이우리를누르지않고권세가우리를괴롭히
지않으며이욕이우리를빠앗지않으니, 하늘을우러러홀로서서천지에구애받지
않고속박이나장애가없이마음대로일뿐이다. 사람과사회가자유를얻었다. 새해
의즐거움이어찌당연하지않겠는가.

이미자유가있는데평등이없어서되겠는가. 집집마다문앞에세운소나무는크
기가다를뿐, 세계는평등하다. 주인의새해일뿐만아니라, 하인도새해인것이다.
깃털공을치며노는하고이타채羽子板에먹을칠하는것은하녀와귀족의따님을불
문한다. 연날리기는견습공과도련님을불문한다. 계급은완전히제거되고차별은
완전히사라진다. 한자리에서서로화목하고즐거울뿐이다. 한집안에서화평하고
즐거움이넘쳐흐를뿐이다. 이로써평등을얻었다. 새해의즐거움이어찌당연하지
않겠는가.

인생의목적은정의로움에있다. 자유로움에있다. 평등함에있다. 오로지이
셋을얻으면인간은성인이고사회는천당이다. 해마다인간이죽음에다가가면서
도여전히새해를즐기는까닭은여기에있기때문이다. 다만이것이있다면새
해가아니라도새해처럼즐거움을얻을터이다. 하지만아아, 1 년 360 여일중이
일주일제를외하면정의가없고자유가없고평등이없는천지가인생에꿈임이없는
것은본래누구의허물인가.

(〈新年何故に樂しき乎〉,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1 월 5 일)

그렇다. 오늘날의사회는부의분배에서공평함을잃었다. 부의대부분은, 그것을생산하기위하여노동하는다수인민에게돌아가지않고아무것도하지않고놀고먹는소수자본가의손에들어간다. 이것이옳지않고도리에어긋난것임은분래 따질필요도없는일이지만, 그래도자본이개인의손에사유되고생산사업이자유 경쟁에방임되는동안은도저히피할수없는폐단이라는점은, 서구의의롭고어진 지사들이이미통절히논했고또한우리가평소에절규했다. 그러므로부가일부에 축적되는것을막고자한다면, 우선토지와자본을자본가의손에서 옮겨다수인민의공유로돌리지않으면안된다. 이와같이된다면생산된부는비로소공평하게분 배될뿐만아니라, 자본가도아무것도하지않고놀고먹을수는없으니, 사회전반의 생산액은더욱더증가할것이다. 다수인류가어찌세모의고통을맛볼필요가있겠는가. 그렇다. 그들이영원히세모의고통에서벗어나는길은오로지자본의공유하 나뿐이다. 이를하여사회주의제도다.

우리들은지금사회주의논리의세목을강연할틈이없고또한실행수단과방법 을자세히설명하는번잡함을피하고자한다. 하지만진실로많은인민의복리를위 하여사회문명의진보를위하여몸바치려는어질고의로운지사들에게고한다. 세 모의고통은오로지부의분배가불공평한데서비롯된다. 분배의불공평함은오로 지자본가의전횡에원인이있다. 자본가의전횡은자본의사유를허락하는데있다. 일찍이다수의단결된세력으로정치적권리를봉건제후한테서빼앗고삿초번벌정 부한테서빼앗아평등하게사회에나누었던이들이, 어찌경제적권리를자본가의 손에서빼앗아평등하게사회에나누지않는가. 당시의존왕토막당尊王討幕黨이 나자유개진당自由改進黨은어찌한발더나아가민주적사회당이하고자하지않는가. 이것은웃어른을위해나뭇가지들꺾어드리는것과같은일일뿐이다. 태산을옆 에끼고북해를뛰어넘는불가능한일이아닌것이다.

(〈歲末の苦痛〉,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12 월 17 일)

신년의환희

즐거운새해. 새해의즐거움은문앞을장식하는소나무가있기때문이다. 소나무가없는집도즐거운법이다. 도소주가있기때문이다. 도소주가없는집

지금전때문이다. 그러므로여러분은열심히허를짓무르게하고붓이얌하게해보 다도우선스스로금전만능의힘을휘두르는것이더나을것이다. 만약금전을가지 고있지않다면금전만능의힘을절멸시키는것이더나을것이다. 다시말해서세상 에서금전의필요를없애지않는다면결코세상의도와인심을유지할수는없을것 이다.

금전이없으면사람은살수없다. 이것이세상의실제다. 그렇지만오늘날의부 패한사회라해도아무도이것을정의라하지는않을것이다. 진리라하지는않을것 이다. 사람은진실로금전의바깥에서살지않으면안된다. 금전의바깥에세력이있 고명예가있으며, 권리가있고의무가있다. 거기에빵과 의복이있지않으면안된 다. 그런데지금금전은실제로무한만능의힘을지녔다. 진리는결국실제로나타나 지않으면안된다. 정의는결국실제로행하지않으면안된다.

시험삼아금전이하루아침에폐지되었다고하자. 필요가완전히없어졌다고하 자. 사회는얼마나고상해질까. 얼마나평화로워질까. 얼마나행복해질까. 뇌물, 매수, 매절買切은완전히흔적을감출것이다. 살인강도, 간음은태반이줄어들것 이다. 공창제폐지를부르짖을필요가없다. 풍속개량을설파할필요가없다. 당장 에이곳이정토이고천당이니, 성쇠란자연의숫자다. 예로부터인도, 이집트, 그리 스, 로마문명에서만약금전의존재가없었다면, 그수명이수천년은더유지될수있 었을것이라믿는다.

다만금전의세력이지금과같은때에금전폐지라는말을꺼낸다면, 세상사람들 은우리를보고미쳤다고할것이다. 미쳤는가, 정말로미쳤는가. 세계도처에충만 한유럽최신의사회주의는모조리미쳤을까. 사회주의자는금전폐지, 자본의사유 私有절멸을이상으로삼았다. 그들은인간과사회가금전밖에서살기를바라기때 문이다. 금전바깥에세력, 명예, 권리, 의무가있기를바라기때문이다. 이것이진 리다. 이것이정의다. 진리와정의가과연실제로행할수있는것이라고한다면, 사 회주의실행이어찌어렵겠는가. 그렇다, 불가능한것이아니라이루려하지않는것 이다.

우리들은본래단순한교환매개, 가격표준으로서금전을부정하지않는다. 그 효용을도량형이나철도승차권이나의사의처방전같은것에지나지않게한다면그 것이희든누렇든동글든네모났든, 친구황후를웁기든스가와라노미치자네를그 리든추호도폐지할필요를느끼지못한다. 다만, 어찌겠는가. 금전은본래의효용 이나목적이상으로무한만능의세력을떨치며인심을부패시키고풍속을어지럽히 고자유를파괴하고평등을교란하고사회와국가를망하게하지않고는끝나지않는 다. 그러므로우리들이금전폐지를부르짖는것은오늘날의이른바‘금전’의의미를 절멸시키는데있다. 다시말해무한만능의힘을절멸시키는데있다.

그런데금전폐지는어떻게이룰수있는가. 오로지자본의사적소유를금하는데 있을뿐이다. 왜냐하면오늘날금전이무한만능의힘을누리는까닭은개인이그것 을생산자본으로자유로이사용하기때문이다. 보라. 그들은금전을자본에투자한 탓에, 배불리안락한생활을하며손가락하나움직이지않고토지, 기계, 노동의세

요소에서생산된부의대부분을혼자서빼앗을수있는것이아닌가. 그리하여그들은빼앗은부를가지고더욱더자유로이토지와노동을매수하여끊임없이생산의대부분을빼앗을수있는것이아닌가. 금전을생산자본으로삼아자유로이사용하는한, 부는자연스럽게한사람의손에축적되고분배는점점더균형을잃어빈부격차가점점더벌어진다. 그리하여금전에대한사회의욕망이한층맹렬해지면, 다시그만큼금전의세력은커진다. 그리하여그것이극에달하면‘금전’이라는무한의세력을가진자는홀로명예와권세와부귀를독점하여사회는완전히타락해버린다. 이것을공평하다고할수있는가. 정의라고할수있는가. 하지만이것이오늘날의실상이아닌가.

더구나금전은직접적으로생산자본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단지토지, 기계, 물품의가격표시에지나지않는다. 토지나생산기계를사회공공의소유로 옮겨만인이똑같이생산에중사한다면금전은단지생산된물품의분배에필요한매표준에지나지않으며, 그효용은도량형에지나지않는다. 승차표에지나지않는다. 의사의처방전에지나지않는다. 어찌오늘날과같은세력과해독이있을수있겠는가.

무릇이세상에태어나서일하지않는자는먹을수도없다. 이것은천지의가장중요한법이다. 지금금전으로자유롭게토지와기계와노동을매수하게하기때문에, 다시말해개인으로하여금금전을생산자본으로자유로이사용하게하기때문에금전을가진자는모두무위도식한다. 단지무위도식할뿐만아니라아가타인의의식주대부분을빼앗아낭비하고있지않는가. 이것은석가가크게개탄하고, 예수가통분한일이다. 그런데도그들은아직자본사유의금지에생각이미치지못했다. 그들이이것을단행하지못할만큼오늘날의세상이말세는아님을믿는다.

그렇다. 우리들은다시한번말한다. 금전무한만능의힘을절멸시켜사회의타락을구하고자한다면, 마땅히신속히오늘날의경제제도를개혁하여생산자본을사회공동의소유로 옮겨야한다. 이것을사회주의적개조라고하며근대사회주의자는이것을유일한이상으로삼는다.

천하에인심을밝히고세상의도의를유지하고자하는자는어찌구구히지엽적논의를그만두고우선사회주의의실행에힘쓰지않는가. 이것이여러분이그목적달성하는가장빠른지름길이다. 아아, 19 세기는자유주의시대였다. 20 세기는장차사회주의시대가되려고한다. 천하의유망한자들은다만이새로운기운을뚫어볼필요가있다.

(〈金錢廢止の理想〉·〈禁轉廢止の方法〉,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2 월 9 일·22 일)

(〈自由黨を祭る文〉,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8 월 30 일)

세모歲暮의고통

고인이“기약없는세상의기약”이라고한세모歲暮가왔다. 사람이돈을얻으려고해도얻지못하여고뇌하고후회하고두려워하며낭패를보고바쁘게뛰어다니는것이예나지금이나똑같다.

우리인류가세모의고통때문에빼앗기는행복이과연어느정도일까. 사회문명이세모의고통때문에저해당하는진보와발달이과연어느정도일까. 그로인해많은시간이쓸모없이소진된다. 많은건강이그로인해손상을입고, 많은면목이그로인해굴욕을당하고, 심한경우에는커다란사기나협박, 도적이나살인이그하루의고통때문에발생하여사회에백년의과실過失을남기기에이른다.

인류는영원히이와같은고통을견디지않으면안되는가. 사회선각자지위에있는인사는영원히다수인류의고통과문명진보의저해를묵시할수밖에없는가. 아니방관할수있는가.

말하지말라, 이것이사회의자연스러운상태라도저히제거할수없는고통이라고. 어쩌서그런가. 만약이것을자연스러운상태라고할수있다면인간에게질병이있는것도자연스러운상태가아닌가. 생리학과의학술의진보는질병을고칠수있게한다. 문명의진보가유독인류의사회적고통을제거할수없다는것이이치에맞는가. 그렇다. 우리들은제거할수있을지없을지단정하기전에우선가장중요한원인을엄격히조사해야할것이다.

그렇다면대다수인류가세모에고통받는원인은무엇인가. 그것은대단히잘보인다. 그들은금전결핍으로궁지에몰려있을뿐이다. 그들의고통을제거하고자한다면, 단지그들에게금전을얻게하면된다.

그런데그들은금전을얻을길이없는가. 아니다. 그들대다수는실제로매일부의생산에중사하고있지않는가. 그렇다면사회는과연그들의궁핍을구할만한금전을가지고있지않는가. 아니다. 부호의창고는막대한부를저장하고있지않는가. 부는이미많다. 더욱이부를생산하고늘릴길도이미구비되어있다. 그런데도무엇때문에부를대표하는금전에궁핍한자가이렇게많아졌는가. 이제야우리들은알게되었다. 그들이겪는세모의고통, 견딜수없는고통, 방관하기힘든고통은, 오로지부의분배가공평하지않아서단지소수의손에부가축적된데원인이있음을.

이로써그대자유당이자유평등을위하여싸우고문명진보를위하여싸울때, 의로움을보고나아가바른길을밟는것을두려워하지않고, 천번을굴하지않고백번을꺼이지 않는의연한의기와정신은진정으로추상열일秋霜烈日의감개가있다. 그리하여이제편안히있는가.

그대자유당이일어나자정부의억압은더욱더심해지고박해는더욱더급했다. 언론은속박당했다. 집회는금지되었다. 청원은방지되었다. 그리하여포박, 추방, 투옥, 교수대. 하지만그대는정확鼎鑊을보기를엿갈이었다. 수만금의재산을탕진하고후회하지않았다. 수백명의생명을손상시키고도후회하지않았다. 어찌이것이그대가한가닥의이상과신앙을굳게지니고천고에변함이없었기때문인가. 그리하여지금편안히있는가.

그대자유당은이와같이당당한장부가되었네. 수많은어질고의로운지사들의오장을짜낸뜨거운눈물과고운피는그대자유당의양식이었다. 전당이였다. 역사였다. 아아, 타모노나무라마쓰나바바나아카이처럼, 뜨거운눈물과고운피를흘린어질고의로운지사들은그대자유당의앞날이광영으로빛날것을상상하고의연히웃음을머금고죽음을받아들였다. 당시누가알았겠는가, 그들이죽고자유당도죽으리라고. 그들의뜨거운눈물과고운피가원수인전제주의자의유일한장식으로제공될것이라고. 아아, 저뜨거운눈물과고운피는붉은빛이빠지고푸른빛이바랬는데, 지금편안히있는가.

그대자유당이어. 처음에는성현의뼈와영웅의쓸개에는은일월日月과같고혀는벽력과같이공격하여잡지못하는것이없었고, 싸워서이기지못하는것이없었다. 이로써일단입헌대의의신천지를개척하고건곤을알선하는위업을세웠다. 하지만그대는성공을지키는재능은없었다. 그전복은겐무建武의중흥보다위험하여당장에야만적전제의강적에게정복되었다. 그리하여그대의영광스런역사, 명예로운사업은지금편안히있는가.

또한생각한다. 나는어려서하야시유조 (林有造, 1842~1921) 군의집에거했다. 어느날밤한풍이세차게불어대는저녁에, 삿초薩長정부가갑자기하야시군과나를불잡아도쿄 3 리밖으로쫓아냈다. 당시여러분들의머리카락이치솟았던상태가돌연히눈에어른거려잊히지않는다. 그리고보라. 지금여러분은퇴거령을발포한총리였던이토후작, 퇴거령을발포한내무대신아마가타후작의충실한정우政友로서그대자유당이죽는것을지켜보는행인과같고, 나는단지못한자루와세치혀뿐이지만, 여전히자유와평등, 문명과진보를위해분투하고있음을. 그대자유당의시체를매달아영혼을기리면서우리는어찌옛날을그리며지금을어루만지는정이없을수있겠는가. 육유 (陸游, 1125~1210) 가일찍이검각劍閣의봉우리들을바라보고개탄하면서“은평陰平의궁지에몰린적을막는것은어렵지않으나, 이렇게강산이공연히사람을불드네”라는노래를불렀다. 아아, 전제주의자라는궁지에몰린적은막기어렵겠는가. 하지만영광스러운그대의역사는이제완전히말살되었다. 우리는다만이구절을읽으며그대를매달뿐이구나. 그대자유당에만약영혼이있다면정말로와서잔치를벌이라.

위장胃腸의문제 (사회주의가시급하다)

아아, 어리석은교육자여. 세상물정에어두운종교인이여. 우둔한정치가여. 그대들은날마다신문 3 면기사를읽고있는가. 그대들이전심전력으로목청을취하고심기를소모하며열심히윤리를풀이하고도덕을설파하고치국평천하를강구하는데도, 한편에서얼마나우리나라사회질서가문란하고풍속이타락하고사기, 분쟁, 뇌물, 간음, 도적, 살인기타모든부덕한죄악이한치의거리낌도없이갈수로유행하고있는지를생각하면, 그대들은자신들의설득력있는설법, 고상한교훈, 세심한제도의효과가미미한것에어이가없을것이다. 실망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대들의배움이얕은것이아니다. 그대들의얕이적은것이아니다. 그대들의열성이부족한것이아니다. 그런데도효과가없는것은, 마치떨어지는물방울로수레에실린장작에붙은불을끄려고하는것과같은데, 그토록사회의타락이심한까닭은과연무엇인가. 그대들은이사태를이해할수있는가.

인간이빵만으로사는것은아니다. 하지만또한하루라도빵없이사는살수없다. 학생에게생활을위해배우지말라고할것인가. 시인에게생활을위해시를쓰지말라고할것인가. 상인에게허위광고로세상사람들을속이지말라고할것인가. 이것은바로그들에게자살을강요하는것이아닌가. 자살을강요하는종교나교육에과연누가귀를기울일수있겠는가. 사람이첩이되는것도먹기위해서다. 정치활동가壯士가투표를사는것도먹기위해서다. 의원이절개를파는것도먹기위해서다. 이것을금하고자한다면따로먹는길을부여하지않으면안된다. 인생에서과연먹지않고덕의德義나인도人道가있을수있겠는가. 어차피인생의첫번째의미는위장胃腸의문제다. 이문제를먼저해결하지않는한만사만물은여전히혼돈속에있을것이다. 공자가일کن기를백성을부유하게한뒤에가르치라고했는데, 이것이바로그의미다.

지금우리국민의위장胃腸의문제는과연완전하고정당하게해석되었다고할수있는가. 다시말해우리동포는완전하고정당하게먹고있는가.

예쁜옷을걸치고맛있는음식을먹는것은항상소비자지생산자가아니다. 일거에수천만의부를얻는것은항상투기꾼이지생산자는아니다. 일개정당이토지세를늘리거나우편전화사를보호하여수십만금을취득하는반면, 수만명의노동자는해마다조세체납때문에경매처분을당하는것이보이지않는가. 정당한육체노동으로 1 센을얻거나또는얻지못하는동안에, 부정한사업을하는자는 100 금을얻는다. 많이정직할수록그만큼많이가난하고, 많이간계할수록그만큼부유해지는것을보면누가함께이쪽으로향하지않겠는가. 그리하여부의분배가갈수록부정해지고생존경쟁은갈수록치열해져서신문 3 면을부덕과죄악으로채우게되는데, 이것이오늘날우리나라의실상이아니겠는가.

이것을구하는길이명확하지않다면수백가지교훈이나제도도결국무익하고 어리석은임시변통일뿐이다. 그런데지금우리국민의위장문제를해석하려는시도가이처럼의롭지못하고부정하고불완전한것은무엇때문일까. 우리는단연코 이것은개인주의적제도의폐단이자자유경쟁으로발생하는해독의타이라고주장한다.

개인의경쟁은사회진보의원천이라고한다. 어떤점에서보면우리도그것을의심하지않는다. 하지만인간은교섭하는동물이다. 경쟁이있음과동시에통일이없으면안되며, 한개인이스스로살권리가있음과동시에다른개인을살릴의무또한있다. 만약경쟁이있는데조화가없고, 차별이있는데통일이없이자신만생존하고다른생존을돌아보지않게된다면, 개인이진실로성장할수있을것인가? 적자適者는진실로번영할수있을것인가? 아니, 경쟁또경쟁의끝에적자는더고등한적자에게눌리고우자優者は더고등한우자에게꺾여서, 단지가장고등한우자, 적자만을남길뿐이고다른수천만은모조리타락하고모조리쇠망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이것이어찌인간사회, 문명진보의목적이겠는가. 아니, 수천만의타락과쇠망의끝에는가장고등한우자, 적자도스스로서지못한다는것이필연의이치다. 현사회의추세는바로이와같은과정에있지않은가.

과학이진보함에따라사회의생산력과생산물이얼마나놀라운비율로증가하고있는지는이미우리들이두번말할필요도없다. 그러나여전히한편에서세상이갈수록각박해져서인간은오로지생활의경쟁에분주한나머지위장이외에는아무것도생각할수없고아무것도이룰수없게되었다. 이것은매우이상한일처럼보이지만, 자세히검토하면그원인은자유경쟁제도가경제계를무조직과무정부상태로빠뜨린데서기인하지않은것이없다. 봉건세계에서는개인의진보가없었다고해도만인의안심은있었다. 개인의자유가없었다고해도만인의통일이있었다. 위장의문제는정당하고비교적완전하게해석되었다. 그래서무사도도있었고명예도있었고도덕도있었고신용도있었다. 그런데지금의자유진보의세상은위장이외에아무것도없지않은가.

개인경쟁이경제사회에끼치는폐해는우리가일일이상세하게서술할여유가 없지만, 부의분배가불평등하고또한매우의롭지못하고부정하게이뤄지는것이첫번째다. 빈부격차가갈수록심해져서생산이낭비되는것이두번째다. 운수교통기관등의독점적사업이경쟁에휘말려결국한개인이나한회사에합병되는것이세번째다. 광고경쟁과상업적여행이거액의부를낭비할뿐만아니라고객을기만하는해독이네번째다. 생산이항상과잉되거나부족하여수요공급이자주균형을잃는것이다섯번째다. 그리하여그결과관공업이위기에처하고공황이발생하며물가의고저가일정치않고결핍, 기아, 악덕이초래되는것이여섯번째다. 이리하여경제계는완전히무정부상태에빠지는것이다.

그렇다. 무정부다. 간계와폭력의경쟁에일임한다. 오로지우승열패, 약육강식의결과에일임한다. 이때에자본가의횡포를타하지말라. 그가횡포하지않으면다른자본가에게눌리는것이다. 금전이없는자는명예가없다. 심한경우에는의식

과집안의행복도버려야한다. 재산과생명도버려야한다. 이리하여비로소대군자도나오고대개혁자도나오는것이다.

그러므로독립자존의가르침은반드시조화평등의덕을수반하지않으면안된다. 자애自愛의마음은반드시박애의마음을수반하지않으면안된다. 만약에조화평등의덕이독립자존을통제하지않고박애의마음이이것을따르지않는다면, 독립자존, 개인자유주의는바로부덕한이기주의가된다. 혐오할만한약육강식이될수밖에없다. 이것이오늘날의실상이아닌가.

그렇다. 오늘날의근심은개인주의의폐단이극한에이른데있다. 이기주의가성행하는데있다. 자유경쟁만있고평등조화가없는데있다. 개인은있어도국가가없고, 국가는있어도사회가없다. 다시말해사회에대한공의와공덕으로자기한몸을규율하지않고, 오로지자기한몸의이해득실로사회의복리를좌우하려고하는데있다. 이러한때에사회적평등조화, 공의와공덕을설파하지않고개인의독립자존만을가르치는것은불을끄려고기름을붓는꼴이다. 그결과가걱정스럽다.

우리들은세상의곡학曲學하는사람처럼단지충효의두글자가없는것때문에 멋대로『수신요령』을비판하는것이아니다. 다만진정한사회적관념으로국가나사회를위해자기몸을희생하여있는힘을다하는의용봉공義勇奉公의마음을장려하는조목이없음을애석해한다. 만약과연이것이있다면충효는저절로그안에있을뿐이다.

(〈修身要領を讀む〉,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3 월 6 일 ~7 일)

자유당제문祭文

해는경자庚子년 8 월어느날밤, 금풍金風이서글피불고이슬이하얇고하늘이늑을때, 별하나가홀연히떨어지는소리가났다. 아아, 자유당이죽었는가. 그리하여그광영의역사는완전히말살되었다.

아아, 그대자유당이며, 우리는이말을할수있을까. 생각해보면 20 여년전전제와억압의참혹한독이도도히사해로흘러넘치고유신중흥의커다란계획이크게좌절되었을때하늘에게신조종祖宗의영혼은환히그대자유당을대지에내려서고고한목소리를드높이고붉은빛을휘날리게했다. 그리하여그대의부모는우리건곤에가득한자유평등의정기였다. 세계를뒤흔든문명진보의대조류였다.

대개독립자존은개인자유주의의골수이자주축이다. 우리들은유럽각국이군주전제의질곡을탈피하여 19 세기문명의광휘를발휘할수있었던것이바로개인자유주의의선물이었음을안다. 그리고우리나라의오늘날의문명에, 또한후쿠자와옹이개인자유주의를전하여한시대의사상을개혁하는데크게공헌을한것을안다. 하지만세운世運은날로변하여달라진다. 방패와깃털을잡고춤추어평성平城을열수는없다. 개인주의적문명은과연언제까지찬란한빛을유지할수있을까.

방패에는양면이있다. 물건에는양끝이있다. 이로움과해로움은반드시어디서나한쌍이다. 개인주의는한편으로반드시이기주의를면할수없다. 귀족전제, 봉건계급의폐단이극에이르러인민이거의노예의지경에떨어졌을때개인의자유와독립자존주의는세계의구세주였다. 후쿠자와옹은이때에이구세주를받들고서서전에없이훌륭하고뛰어난업적을세운덕분에이주의를유지하였고, 수신요령도수십년동안변함없이이것을골자로했다고하지만, 보라. 지금계급타파는질서가붕괴되어버렸고, 자유경쟁은약육강식으로변했으며, 개인자유주의는나아가이기주의의한면을드러내어, 폐단이사해에넘쳐흐른다. 그런데독립자존을, 아니독립자존만을사람들이수신의요령으로삼는것은위험하지않다고할수있겠는가.

사회를위하여개인을몰아버리라는뜻이아니다. 하지만사회가개인을몰아버릴수없듯이, 문명사회에서는결코개인을우선시키고사회를뒤로할수는없다. 수신의길, 도덕의가르침은반드시한시대의사상에따라사회다수의복리를표준으로삼는공의와공덕이아니면안된다. 사회의공의와공덕이반드시독립자존과상반되는것은아니다. 후쿠자와옹의뜻은본래공의와공덕을무시하지않는다고해도, 아버지가원수를갚으면그아들은반드시위험한다. 독립자존은일변하여이기주의가된다. 이기주의는대개사회에대한배덕이되어버릴수밖에없으니, 우리들은이것을깊이두려워한다. 설령이기주의가되지않더라도고답적인은자가될뿐이다. 백이(伯夷) 도독립자존이었다. 엄자릉(嚴子陵) 도독립자존이었다. 사마휘(司馬徽, 173~208) 도독립자존이었다. 하지만이들이어찌오늘날사회가바랄만한사람인가.

『수신요령』 도마찬가지로박애를말했다. 하지만단지“자신을사랑하는정을 넓혀서타인에게미치게하는것은미덕이다”라고하는데그쳤다. 그렇다. 자신을 사랑愛己하는마음이타인에게미치는것을미덕으로삼아도아직이기심을벗어날수없다. “타인의권리와행복을존중한다”도“남과교제할때는믿음으로해야한다”도, 모두‘독립자존’을위해서라고한다. 이기심을추구하지않은것이없다. 이것을어찌진정한도덕이라고할수있겠는가. 진정한인간의도덕은, 마치니가말한바와같이, 개개인이사회에책임과의무를다하는데있다. 보상을바라는데있지않다. 보상을바라고행하는사람은마치자신의그림자를쫓아서달리는것과같은뿐이다. 조금도보상을바라지않고사회에대한책임과의무를완수하려면자신의몸

주도없다. 그리하여금전이자유경쟁, 부정불의의경쟁에일임된다면, 누가질서의문란이나풍속의타락을이상하게생각하겠는가. 우리는굳이교육이나종교를 폄하하는것이아니다. 하지만금전이없으면교육의혜택을입을수없는제도라면, 금전이없으면종교를받들수없는조직이라면, 결국보급이나감화의성과를볼수없는것을어찌하겠는가. 그러므로우리는우선만민의위장을만족시키는것이교육과종교가번창하는길이라고생각한다.

경쟁으로생기는폐해는조화를통해서구제하지않으면안되고차별로인해생기는해독은평등을통해서구제하지않으면안되며, 개인주의가혼란하게만든세계는사회주의를통해바로잡지않으면안된다. 세플레는사회주의는명백히위장의문제라고했다. 에드먼드켈리는사회주의는근검절약위주의생산과공정한분배문제를해결해주는실질적기획이라고했다. 그렇다. 우리국민의위장문제를정당하고또한완전하게해결하는것은오로지사회주의를기다리지않으면안된다.

(〈胃腑の問題(社會主義の急要)〉,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9 월 18 일 ~20 일)

최근의노동문제 (사회주의의적용)

최근노동문제를논의하거나운동하는사람들사이에서사회주의를비난하고 공격하는목소리가점차높아지고있다. 만약이런종류의속설이사회에서세력을 얻기시작한다면, 비단사랑스러운우리노동자우리여러분의앞길을크게그르칠뿐만아니라, 나아가우리나라의각종사회문제, 특히노동문제의앞길을막고갈수록곤란과분규속으로빠뜨려오래도록해결을볼기회가없을것이다. 천하민생의불행가운데이보다더한것이있을까. 지금이속설들을완전히배척하고우리노동자여러분을위하여외길의불기둥 fire pillar 을밝히는것이우리들의시급한책임임을믿는다.

예전에활판공동지간화회회보에게재된구와타(桑田) 모씨의〈노동자와 자본의관계〉라는제목의연설을읽었다. 이연설같은것이이속설을고무하는것가운데하나다. 그는“장래의노동문제해결은노동자와자본가가친밀하고온화한관계를유지하는데있으며, 세상에잔인하고각박한자본가가없지는않지만, 그것은

그사람의죄이지자본가전체의죄는아니다. 그것으로자본가전체의박멸을주장하는것은부당하다. 단지부당할뿐만아니라도저히실행해서는안되는일이다”라고했다. 자본가와노동자사이가만약온화하고친밀할수있다면정말바람직하다. 사회주의자라고해도어찌감치이견이있겠는가. 하지만현재도아래있으면서과연언젠가그목적을달성할수있을까. 이론보다증거라고, 양자사이작년보다는올해에, 어제보다는오늘시시각각으로분열과충돌이늘어나고있지않은가. 분열과충돌을불러온이유가과연무엇인지를보라. 속설론자는이것을단지노동자의지식과패기부족에돌리고있다. 어쩌면그럴것이다. 하지만노동자에게지식과패기가부족한것은과연무엇때문인가. 그이유는주로자본가의횡포와빈부격차에있지않은가. 또한자본가의횡포와빈부격차는과연무엇때문인가. 이것은주로현자유경쟁제도의폐단에있지않은가. 뿌리가어지러운데끝이다스려질리가없다. 자유경쟁의조직이폐단을심화하는동안은양자의친목과조화가어찌쉽겠는가. 사회주의자가자유경쟁제도를사회주의조직으로대치하려고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하지만속설론자는노동자에게오로지자본가와친목하는것이최고의책략이라주장한다. 얼마나잘못된주장인가.

사회주의자라하더라도자본가전체를죄인으로보지는않는다. 자본가는모조리잔인하고각박한사람이라고믿지도않는다. 하지만지금의자유경쟁이결국자본가를저도모르게각박하고잔인하게만드는것을어찌겠는가. 무릇자유경쟁은비단노동자를괴롭힐뿐만아니라, 자본가도거의견디지못하게한다. 아무리속설론자가조화를주장하든친목을주장하든, 그들은도저히싸우지않을수없다. 겨루지않을수없다. 다투지않을수없다. 한편은항상누르려고한다. 한편은항상저항하려고한다. 설령잠시양자가조화를이룬것같은느낌이들더라도, 이것은결코진정한조화가아니라, 운송게도마침항거의힘이압제의힘에맞먹을수있었기때문일뿐이다. 이것이어찌영속적이겠는가. 그러므로잘보라. 노동자가조합을만들면자본가는트러스트를만든다. 노동자가동맹파업을하면자본가는블랙리스트를만든다. 그리하여이싸움은지금과같은악육강식의세상에서는항상노동자에게불리하고자본가의이익으로돌아가는것이아닌가. 사회주의자도마찬가지로자본과노동의상부상조의필요성을안다. 하지만오로지자본가와노동자의친목으로자본과노동이조화를이룬다는것은망령된오류의극치다. 아니, 자본가와노동자의영원한친목은결코바랄수없는일이다. 저속설론자가오늘날이러한친목을유일한목적으로삼는것은우리노동자여러분을영구노예의치지에만족시키려는것이다. 무턱대고자본가, 고용주의배를살피우려는것이다.

그렇다. 자유경쟁제도는자본가, 노동자모두에게도저히견딜수없는것이다. 우리나라가아직은폐단이서구여러나라처럼심해지지않았기때문에‘노동자자본가친목론’을한가로이고취할여지가있어서구의전철은이미눈앞에있다. 최근에우리나라방직업자가일종의트러스트조성을기도한것등은이미이러한폐단에말려들려고하는조짐이아닌가. 자본가절멸을목적으로한다고사회주의자를함부로중상하지말라. 자유경쟁제도를사회주의적제도로고치는것은노동자를살

리들은독립자존에대해추호도비판할곳이없으며, 개인의인격을온전히하기위해서는매우필요한것임을믿는다. 그렇다. 참으로필요하다. 하지만“오늘날의남녀가오늘날의사회에대처”하는것이과연독립자존을내실로하는것으로그저본분을다했다고할수있을까.

사람이모여서국가를이룬다. 그사람이바로항상국민의한사람임을잊어서는안되는것과같이, 사람이사회를이루는이상, 그사람은반드시항상스스로사회구성원임을잊어서는안된다. 만약에우물을파서마시고밭을갈아서먹고, 제왕의은택이있는지를몰랐던태곳적사람이라면상관없다. 문명의진보로분업의세상이되었다. 분업의세상은결국사람을불구자로만든다. 상업은결코상업만으로먹을수없다. 농업은결코농업만으로입을수없다. 사회각자가상부상조하는것은, 마치앞발이긴이리와앞발이짧은이리가상부상조하는것과같이, 잠시도결코서로떨어져서는안된다. 그렇다. 개인은오로지사회구성원일때비로소독립자존을내실로삼을수있는것이다. 일단사회조직과모순을일으키고충돌하고이반하면사람은당장불구가될수밖에없다. 그러므로사람이이세상에대처하는것은개인으로서독립자존을온전히하는한편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그사회에대한평등과조화를내실로삼지않으면안된다. 즉사회에복종하는공덕이없으면안되고사회를위하여진력하는공의公義가없으면안된다. 더욱이나아가서는사회공공의복리를위하여개인의복리를희생할각오가없으면안된다. 이리하여사람은사회에속할때비로소사람으로서본분을완수했다고할수있지않을까. 오늘날문명사회의수신요령이라면어찌이중대사를등한시할수있겠는가. 하지만후쿠자와유키의『수신요령』은오로지중심을개인의독립자존에두고사회에대한평등과조화, 공의와공덕을훈계하는데는너무나도지나치게냉담한것같다. 제 13 조에서제 19 조까지는어느정도사회에서개인의처신을설파하는것같기도하지만, 단지“건전한사회의기초는한사람한집안의독립자존에있다”, “사회공존의길은상호침범하지않고자타의독립자존을손상시키지않는데있다”, “복수는야만이다”, “남과교제할때는믿음으로해야한다”, “예의범절은교제의요건”이다, “자신을사랑하는정을넓혀서타인에게미치게하고, 그고통을줄이고복리를증진하기위해힘쓰는것은박애의행위이자인간의미덕이다”라고말하는데그칠뿐이다. 하지만이것들은모두독립자존을위한것이며, 개인이사회전반의복리증진을위하여희생하는것이본분이고책무이며덕의임을설파하지않는다. 그리고우리들은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에서군사에복무하고국비를부담하여외환外患이있으면생명과재산을던져서적국과싸워야한다고는하면서, 오히려나아가크게전사회와민을위하여목숨을버리고절개를지키는고상한도의를설파하지않은것을아쉬워한다.

이와같이수신요령은오로지독립과자존을중시하고평등과조화를경시하며, 오로지개인의도덕을볼뿐, 개인이사회에서지켜야할공도公道와공덕을거의보지않는다. 이것이우리가답답함을느낀까닭이다. 이와같은방침을오늘날의수신요령으로삼는다면, 우리들은그결과를상상해볼때깊이우려하지않을수없다.

각건대옹이없었다면우리국운의진보가어찌이와같이될수있었겠는가. 우리국민이옹에게진빛이많다.

하지만이것은여전히지엽적인것이다. 우리들이특히옹에게경도되는까닭은 학문과문장에있는것이아니라그인물이었다. 평범한거인인데있다. 옹은평범함에안주하여비범함을바라지않았다. 동도 (東都, 도쿄) 에전쟁의먼지가충만할당시에의연히글을강론할수있었던것이이것이다. 40 년이라는오랜세월을가르치기를쉬지않는성자를닮을수있었던것이이것이다. 오래도록무작無爵의일개평민으로서부귀도음탕하게하지못하는저변의도덕이있고위력도굴복시키지못하는저변의지조를지키며죽음에이르기까지변함이없었던것이이것이다. 일대사표로서우리사상계에대혁신의위공을세운것도이것이다. 그렇다. 옹이희대의거인인가닭은다만철두철미하게평범한천직을행하여굴하지않은데있다. 평범한본분을다하여꺾이지않은데있다. 비범함을바라지않은데있다. 그리하여지금인물이사라지니우리들은천영의비범한거인보다는일개평범한거인이있기를바란다. 그런데지금인물이사라지니애석하지않겠는가.

(〈平凡の巨人〉,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2 월 6 일)

『수신요령』 을읽다

후쿠자와옹이편찬한『수신요령』은“오늘날의남녀가오늘날의사회에대처하는길”을설파했는데, 독자적인비평안을갖추고있어평범하고쓸모없는선비들이결코필적할수없는점이었다. 참으로최근교육계의귀중한산물 product 임은틀림없다. 하지만우리들은한번읽고나서대단히답답한마음이들었다. 두번읽고나서는소름이끼칠정도로두려운마음이드는것을금할수없었다. 왜그런가.

『수신요령』은제 1 조에서제 29 조에이르기까지이른바독립자존주의로일관한다. 옹은이주의를해설하여“심신의독립을온전히하고스스로그몸을존중하여사람다운품위를부끄럽게만들지않는것, 이것을독립자존의사람이라고한다”고했다. 또한“독립자존의사람은자로자활自勞自活하는사람이어야한다”, “신체를소중히여겨건강을지켜야한다”, “진취확취進取確取의용기가있어야한다”고했다. 이것이곧독립자존주의의정의를대략간추린것이다. 이와같다면우

릴뿐만아니라, 자본가도살리기위함임을알라. 사회주의자는일시동인一視同仁이다. 전심을다하여자본과노동의조화를바란다. 하짐나자본가와노동자의친목은해서는안되는것임을안다. 저속설론자라해도이것을모르지않는다. 실제로구와타모씨는연설에서또한“주식회사에서주주는오로지이익배당이많기를바란다. 관리자도되도록이익배당을많게해서주주의환심을사기를바라기때문에, 이들에게직공을보호하고너그럽게대할것을바라는것은도저히실행될수없다”고말한다. 이것은명백히친목을바라기가어렵다는것을증명하는것이아닌가. 속설론자의자가당착적논리가아닌가. 그렇다. 자본가전체는잔인하고각박하지않다고해도그들은결코기꺼이이익을나누는사람들이아니다. 그러므로노동자의눈으로보면, 아니사회민생의눈으로보더라도, 자본은정말로필요하지만자본가는결코필요하지않다. 이렇게말한다고해서사회주의자가일시에급격한변혁으로천하의자본가를모조리절멸해야한다는것은결코아니다. 이것을바로지금곧바로실행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도아니다. 사회주의자를이와같은폭도로여겨배척하고비난하는데열중하는것은중상도너무지나친중상이다. 하물며오늘날자본가가노동자를보호하고가까이할희망이도저히없음을알면서도오로지노동자들을향해온화와친밀을설파하는것은모순당착의끝이아니겠는가.

속설론자여, 자본과자본가는다르다는것을명심하라. 사회주의자는감히자본가의절멸을바라지않는다고해도, 자본과노동의진정한조화를위해서는자본을사회의공유로할것을주장하지않을수없다. 그결과로서개인인자본가의부정한폭리를줄이는것이어찌불가능하겠는가. 예전에사민평등을위하여봉건군주의영토를봉환시켰던것을보라. 이것이부당한처사가아니라고한다면, 어찌유독자본가의폭리를줄이는것을부당하다고하겠는가. 이렇게되면자본가는노동자를약탈할수없을뿐만아니라, 자기보다큰자본가에게약탈당하지않을것이다. 노동자를살리는동시에자본가를살리는것이다. 사회주의는박애다. 일시동인이다. 속설론자의희망처럼하나를괴롭혀서다른하나를이롭게하는것이아니다.

속설론자라해도지금의경제조직의폐단을인정하지않는것은아니다. 아니, 그것을인정하기때문에예의‘자본가노동자친목론’을떠들어대기도하는것이다. 하지만미덥지않은현재조직을개조하여자본과노동의완전한조화를목적으로하는사회주의를비난하고배척하기에진력하는것은스스로를너무심하게기만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들은“사회주의는실행할수없는탁상공론이며동맹파업을목적으로삼는것”이라고한다.

사회주의는과연실행할수없는것인가. 우편, 전신, 철도, 삼림의국유는모두사회주의의실행이아닌가. 전신, 가스, 시가철도같은것이시영市營인것이사유인것에비해훨씬편리하고저렴하다는것은서구의여러도시가이미실험하지않았는가. 클래스고같은곳은시가나서서값싼임대주택을건축하여노동자에게빌려주지않았는가. 만약사회주의자가일거에천하의자본을모조리국가로몰수하고모든공업을모조리중앙정부에위임하라고주장한다면, 이것은진정실행하기어려운탁상공론일것이다. 하지만격정을멈추라. 사회주의는결코이와같이과격하

고난폭하지않다. 사회주의자는오로지중앙정부의만능을믿는사람이아니다. 국가의무한한권력을숭배하는사람이아니다.

영국페이비언협회 Fabian Society 의노동자정치강령중에“우리는사회市會나군회郡會가공업생산의각부에게할세력을갖기를바란다”고하는구절이있다. 또한“우리의금전을둘곳을중앙정부의금고이외에찾을수없는한은, 토지를국유로한들무슨이익이있겠는가. 중앙정부는다만재산을화약등의외교적손상에소비할줄만알뿐이다. 의회는지방의공업생산의곤란함이나실업노동자를구제하지않는다”고한다. 그렇다. 작게는일개정촌町村의사업에서크게는일개현縣이나도부都府, 한나라의사업까지각각의편의에따라점차자본을사회인민모두의손에집중해생산의이익을공평하게분배한다. 이것이사회주의의주장이다. 도쿄마차철도가영원히사유로남아야할이유는없다. 시가철도는결코영원히증권중개업자의먹이가되어야할이유가없다. 이것을공유로하여만민이공평히이익의배당을받는것이어찌실행하기어려운일이겠는가. 다만땅과때와사정에따라다소시일의길고짧음과성과의완성도를달리할뿐이다.

하물며사회주의자가동맹파업을목적으로삼는다고주장하는것은무슨건장부회인가. 속설론자가숭배하는자본가가운데때로잔인하고각박한사람이있듯이, 사회주의자가운데또는엄청난억압과박해 탓으로난폭하고과격한행동을불사하는사람이있을것이다. 그렇지만그때문에사회주의를배격해야한다고한다면, 유신이전의근왕론자는모조리난적이아닌가. 오히려웃음을참을수없다. 아마도그렇다. 세상에만약실행하기힘든탁상공론이었다면, 그것은사회주의자의논의가아니라, 오히려속설론자가주장하는, 지금의경제조직의범위내에서노동자의지위를개선하려고하는논의임을알라.

요컨대우리나라노동문제의귀착은비단시간단축을탄원하는것만도아니고, 임금증가를탄원하는것만도아니다. 오히려노동자가정당한지위와권력을보유하고생산에대한공평한분배를얻는것을궁극적목표로삼지않으면안된다. 그런데이것은지금의경제조직에서는도저히바랄수없는일이며, 반드시사회주의적 이상의실행을기다리지않으면안된다. 노동자로하여금자본을공유케하지않으면안된다. 적어도우선공공사업에참여할권리를갖게하는방법을찾지않으면안된다. 보통선거시행과같은것은특히시급한사안에속한다.

아아, 우리나라노동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오로지사회주의가있을뿐이다. 노동자여러분을살리는것은오로지사회주의가있을뿐이다. 속설에속지말라.

(〈近代の労働問題(社會主義の適用)〉, 「萬朝報」 1899 년 (메이지 32 년) 10 월 3 일 ~4 일)

(〈伊藤侯の盛徳〉,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4 월 25 일)

평범한거인

거인이두명있다. 한명은기이한재능과탁월한수완을휘둘러비범한활극을연출하여일시에천하의이목을놀라게하여강호의갈채를받았다. 다른한명은행실이굳이바른길을벗어나지않고추호도기이함이없으면서도선을쌍고덕을높이세워마침내한시대가추앙하는사람이되었다. 우리들은전자를비범한거인이라부르고후자를평범한거인이라부르고자한다.

비범한거인은대개군인, 정치가가 많다. 평범한거인은드물게학자, 교육자, 종교인중에서나온다. 유사 이래비범한거인은많으나국가와인민에게이로운바가적고, 평범한거인은적으나사회와문명에이로운바가 많다. 비범한거인은예를들면기암괴석이어나거센폭포가사람을놀라게하는것과같다. 그런데놀라게한다고해도그효과는문사나시인이쓸데없이잔재주를거루는재료에 지나지 않을뿐이다. 평범한거인은예를들면한덩어리의토양이쌓여우뚝 솟은큰산이되고, 한갈래가는물줄기가모여넓디넓은강과바다를이루는것과같다. 그것이평범하다고해도만민은그것덕분에살고의식주를얻는것이아닌가.

그렇다. 두명의거인이있는데, 하나는폭력이고하나는의리다. 하나는재지才智고하나는덕행이다. 하나는인작人爵이고하나는천작天爵이다. 하나는물질이고다른하나는정신이다. 고로하나는눈앞에있고다른하나는썹지않는다. 우리들은비범한거인을천명내는것보다는오히려평범한거인이한명있기를바란다. 그리하여보라. 유신 이래로많은비범한거인을냈다. 기도다카요시(木戸孝允, 1833~1877) 나사이고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 나오키모토시미치(大久保利通, 1830~1878) 나이와사키는모두비범한거인이었다. 평범한거인에이르면과연누가있었는가. 우리들은겨우오키쿠자와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 옹하나가평범한거인을방불케함을보았을뿐이다.

직언하면우리들은평소에오키쿠자와옹의소견에따르지않는자가 많았다. 하지만옹이일찍이서구문명을강의하고많은영재를교육하여일대사상을혁신하고현재의일본문명을이룩한공적은천고에닿지않을것이다. 공자가일컬어관중(管仲)이없었다면우리는웃것을왼쪽으로여미는오랑캐가되었을것이라고했다. 생

이토후작의성덕

일찍이책을읽다가프랑스의위인장자크루소가탄식한말을본적이있다. 큰인물은비유컨대길거리에서있는흰벽과같다. 지나가는사람들이모두그위에낙서를하여더럽힌다고했다. 우리들은오늘날의이토히로부미후작에대해이와같은느낌을대단히많이받는다.

우리들은본래이토후작을큰인물로보지는않는다. 그가겁약하고아침을잘하며, 저열하고파렴치한소인이라는것은이미여러차례강조했다. 하지만그는확실히어떤부분에서 4 천만명중어느누구도필적할수없고어느누구도비난할수없고어느누구도비판할수없는성덕盛德을지녔다. 우리들은일단성덕이라고한다. 성덕이라는말이외에적당한명사를선택할자유가없기때문이다. 그의성덕이란다름아니다. 천황으로부터공전의총애를받는것이그것이다.

이성덕은예로부터군자가가지는것인지소인이가지는것인지를묻지말아야한다. 이토후작이이것을가질자격이있는지없는지를묻지말아야한다. 다만그는현실적으로이성덕을가진다는점, 성덕이천하에가장뛰어나다는점이바로그를길거리의흰벽이되게했다. 지나가는자는모두그위에낙서를하고그를모욕하지않는자가없다. 하지만그는스스로그것을불식할수없다. 거절할수없다. 도피할수조차없다. 가졌지않은가.

자유당이그를추대한까닭은오로지그가흰벽의성덕을지녔기때문이다. 정치적말썽꾼들은모두이흰벽을이용하여글자로얼굴을그리는식의필력을드러내려몰려왔다. 구관리인막부관료나신진학자들이그를추대하는까닭은역시흰벽을이용하여사랑의낙서나여러가지낙서를하는기쁨을얻기위해서다. 그밖의허다한정치적, 실업적여행객은이흰벽으로달려가이름을새기고생각하는바에제목을달고지나가지않는자가없다. 이리하여처음에는휘황하게빛났던것도종횡으로칠해지고상하로그러져단지검게변해, 어느것이글자로그린얼굴이고어느것이사랑의낙서인지도분별하지못하고, 오로지떨어져내리기를기다릴뿐이다.

그렇다. 그는지금이와같은처지에있다. 그에게성덕이없었다면, 그는결코행인의주목을끌지못했겠지만, 그래도이와같이불식할수없는모욕, 도피할수없는궁지에몰리는일은없었을것이다. 단지내지의여행객에게덜칠될뿐만아니라, 나아가외국의정치적여행객의얼굴낙서를감수하지않을수없는운을만난것이다. 그리하여그는나아가려고해도나아갈수없으며몰려서려고해도몰려설수없으니, 뉘우쳐탄탄하고회한하는상태는헤아리기조차힘들다고해야할것이다.

와타나베구니타케도이벽위에큰붓을휘두르려하는사람이었다. 처음에는까마귀나소처럼덜칠된추함을견디지못하고떠나려고하다가겨우여백이약간있는것을발견하고다시그아래에서쉬기시작했다. 아아, 성덕, 흰벽의성덕, 우리들은오히려면민의정을느낄망정부러워할만한것을찾을수없다.

제국주의의괴운

사회주의를혐오하는자여. 눈을크게뜨고세계의대세를보라. 사회주의는명백히 20 세기의위대한이념이자위대한이상아닌가. 무릇지금의세계를지배하는것이제국주의와군국주의라는것은우리들도의심하지않는다. 하지만제국주의와군국주의의해악은이제거의절정에달했다. 유럽각국이민력과국력을다하여새영토경영과군비확장에급급한결과는곧인민다수의곤란과기아, 최악뿐이다. 우리는이미독일과러시아두나라의실상을통해분명한예증을볼수있었다.

비전쟁론자로유명할장드블록은일전의『평론의평론』 지상에서 〈독일의무장을통한평화〉라는제목으로그위험성을논했는데, 독일은결코전쟁을할수없는상황에놓여있다. 그들은농업국에서공업국으로변한뒤로거액의식량을해외에서수입해왔다. 만약그들이 4 백만명의병사를징집한다면당장내지에서 9 백만톤의식량생산력을잃을것이다. 게다가공업은전쟁중에는원료공급길이완전히끊길것이다. 그런데현재독일무역은 2 천만명을먹이고있다. 상공업이한번위축되면그들은어떻게먹고살수있겠느냐고했다. 블록은또한“독일의상업적위치는점차비운으로치닫는다. 그들은염가에염가를거둬다하여상품을팔고있다. 또한번번히외국시장을찾고있지만침체에서도저히벗어날가망이없다. 지금구제방책은오로지군비감축하나뿐이다. 이것이아니면독일은과거와같은전성기는다시누리지못할것이다. 보라, 시장이정말로부담을견딜수있겠는가. 어찌의화단운동대출병비용을대기위해미국에서외채를모집할필요가있겠느냐”고했다.

블록은나아가프로이센-프랑스전쟁 이래로독일의전시저항력은 70 퍼센트가줄었다고단언하고독일국민의변명은한것환상에지나지않는다고갈파하며아래의통계를제시했다.

인구의 45 퍼센트 1 년수입 197 마르크이하

인구의 40 퍼센트 1 년수입 276 마르크이하

인구의 5 퍼센트 1 년수입 896 마르크이하

인구의 1 퍼센트 1 년수입 2,781 마르크이하

블록의말이과연정곡을찔렀다고한다면빈약함이오히려놀랄만하지않은가. 하지만이것은이상하게여길일이아니다. 블록이일컫는유일한구제책인군비감축을하지않은채상공업이익이완전히군비와식민지확장으로흡수되는동안다수인민은갈수록빈곤으로떨어지고생존을위한싸움은갈수록격심해질것이다. 그렇다. 실제로작년통계에따르면이나나라에서 1 년간자살자가거의 8 천명에이르는데, 전반적인생활의타락, 약덕과비관이원인이라고한다. 무릇그들이중국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사모아에서많은이익과영광을얻은결과는, 이와같이사회조직을거의뿌리에서부터위험에빠뜨리고있다. 인민은결코위험한상태를오래견딜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저들의제국주의는평화에의해서든혁명에의해서든어느쪽이든머지않아바로모지예문히려고한다는것을우리들은믿는다.

러시아는위험성이이보다더욱더심하다. 러시아에산이결코신뢰할만한것이아님은세상사람들이다한다. 최근에도착한 「격주평론」에실린어떤글은파울스의『기아의러시아』라는책을인용하여일كن기를, 1887년 1월부터 1899년 1월에이르는 12년간러시아공채는 43 억루블에서 61 억루블로증가했다. 하지만이 17 억의공채수입중철도등생산사업에투자한것은 12 억이고나머지는모조리세수부족을보충했다고한다. 그리하여무턱대고영토를팽창하고군비를확충한결과한편에서민간의극심한피폐를남음과동시에, 다른한편에서철도등의사업은아직수익을얻지못하고있다. 현재의외채원리금상환과세수보충을위해서는또다시외자를투입하지않으면안된다. 만약외자투입방법이없다면내국의모든정화正貨를수출하지않으면안된다. 정부재산은이제매우위험한상황에처했을뿐만아니라, 각지의상공업이위축됨에따라추진민의불만은갈수록증가하여정말로일대혁명의조짐을드러냈다. 그렇다면그들이여전히군비주의, 제국팽창주의로나아가고자한다면, 뒤를잇는것은파산이나혁명이냐양자택일밖에없다. 이것이러시아위정자가현재가장고심하는문제다. 그러므로러시아도머지않아제국주의를버리고나아가일종의새이념을구하지않을수없는운명과 마주칠것임을우리들은믿는다. 비단독일과러시아두나라뿐만아니라이탈리아도그렇고프랑스도그렇고미국도그렇고영국도그렇다. 제국주의는지금사회다수의곤란과기아, 최악을증가시키고사회조직을위험에빠뜨리고있다. 군인, 자본가, 정치가는자기의헛된명성과이익때문에그것을견딜수있을것이다. 하지만다수인민은이상태를견딜수없으며, 나아가사회구제의위대한이념과위대한이상을외치기에이를것이다. 그리하여제국주의가쓰러지면세계를지배하는위대한이념과위대한이상은바로사회주의가아니고무엇이겠는가.

생각해보라. 제국주의가다수인민을곤란과기아, 최악에빠뜨리는까닭은빈부격차를심화하고생존을위한싸움을혹독하게만들기때문이다. 그러므로사회주의의목적은우선빈부격차를제거하는것이아니겠는가. 그렇다. 빈부격차를제거하고자한다면, 사회주의자가주장하듯이, 모든생산수단을공유로하고만인을균등하게노동자가되게하여, 생산분배를공평하게하는것이외에결코방법이없다. 에밀졸라는탄식하며“아아, 이것은세상을구할경이로운교의다(wonderful doctrine)”라고말했다. 그렇다. 사회주의는세상을구할위대한이념이다. 이것은공상이아니라현재의문제다. 이것은과격한것아니라시급한문제다. 지금서구의어질고로운지사는우선이에따라사회의개혁구제를수행하기위해착실히보무를내딘어, 그세력은제국주의의해독이늘어남과동시에증대하고있다. 우리나라사회주의를혐오하는우매한무리는마땅히눈을크게뜨고보라.

독일에서는비스마르크가잔혹한진압을시도했는데도점차당원이증가하여지금제국의회에 58 명의의원인이있지않는가. 프랑스는사회당지도자밀랑이네

있다. 세상의경박한무리들이엄청나게이러한유행을따르는것같다. 아아, 그들이어찌진정한문명인인가. 그들이어찌진정한문명인인가.

19 세기서양문명의정수는개인들이자유평등의이상을품고자주독립의기상이풍부했던데있다. 프랑스혁명이유럽천지를일신한것은오로지자유평등의이성을향하여매진한덕분이었다. 대륙각국이헌법을정하고의회를설치하여수많은국민적통일과홍룡을이룬것도자유평등의이상이널리퍼진덕분이었다. 많은과학적발명이산업혁명을이끈것도오로지자유독립의기상이축적된덕분이었다. 영국의공업과통상이세계시장을제패한것도이기상이떨쳐일어난덕분이었다. 프랑스의문제가크게번성하고독일의학술이다양하게구비된것도모두이와같은이상과기상이홍룡한결과가아닌것이없다. 자유주의도여기에서나왔다. 그들의진보가항상세계에앞서고그들의부강이항상세계에서뛰어난까닭은모두여기에서기인하지않은것이없다. 그러므로서양문명의진의를얻어성과를거두고혜택을입고자한다면, 오로지이이상을함양해야한다. 이이상을떨쳐일으켜야한다. 어찌하이칼라에잇겠는가. 화장품에잇겠는가. 글자를엮으로쓰는데잇겠는가.

그런데문명인을자처하는저무리들을보라. 자유평등의이상에다가가고자하는자는추호도없고, 이이상을지닌자도하나도없다. 그들이송배하는것은귀족이다. 번벌이다. 대훈위다. 후작이다. 그들이희망하는것은관직이다. 지위와녹봉이다. 국장이다. 공사公使다. 그리하여이익을쫓기위해서는아침을하지않는곳이없고, 야망을달성하기위해서는술수를쓰지않는곳이없다. 대개실제행실은도박에빠지고주색에빠지고부채가쌓여있으면서도여전히반성하지않는다. 그러면서도여전히문명의신사, 문명의정치가라자처한다. 이보다더심하게문명을모욕하는것이잇겠는가.

그렇다. 그들의옷은문명이다. 글자나담화는문명이다. 하지만눈속과뇌리에있는것은오로지귀족, 전제, 관직, 금전, 주색, 맹종, 아침에지나지않다고한다면, 이것이어찌문명의껍질을뒤집어쓴야만인인아니겠는가. 그들이평소에조소하는야만인은사상이나내용에서는아직그들만큼야만적이지않다. 저열하지않다. 의지가박약하여실천을못하지않는다. 우리들은그들이의기양양하게세상에자랑하는요즘과같은시절은결코국가의경사가아님을믿는다.

(〈文明を汚辱する者〉,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4 월 25 일)

지금도 여전히 이토 히로부미를 받들고 이노우에가 오루를 밀고 오쿠마 시게노부를 끌어안고 천하를 구하려는 자여.

유신의 혁명은 〈토코톤야레〉의 가락속에서 성취되었다. 입헌대의 제도는 당시에 자유당 지사가 부른 “첫해, 사람 위에 사람 없네”라는 창가속에 설립되었다. 유신의 원훈이나 정당 지도자들은 당시의 중대한 혁명 사업을 자신들의 손으로 매우 쉽게 이룩했는데, 오늘날 구구한 작은 문제들을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스스로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가. 다름이 아니다. 당시 사업은 그들이 청년 활동가의 의의기를 가지고 단행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오로지 늙은이의 수완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풍속 개량회에서 안좌법 安坐法을 강의하고 조금의 반항조차 엄지 못하는 이타가키 다이스케 백작이 당시 자유민권의 목소리로 60 여주주의 산하를 뒤흔든 것을 생각하면, 천하에 가장 가엾은 자가 어찌 미인과 명장뿐이겠는가.

번벌도 늙었다. 의회도 늙었다. 정당도 늙었다. 대학도 늙었다. 국회의원이냐 학자나 상인가운데 나이 40 이 안된 자는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늙었다. 국가와 사회의 경영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 우리 청년의 수중에 떨어지려 한다. 청년이 득의양양한 시대가 열리려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천하에 유망한 청년 지사를 대신하여 오늘날의 노쇠한 무리들한테 대단히 감사한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20 여년에 걸친 노고와 진력을 진심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오늘 이후의 풍운은 우리 청년들의 손으로 일으켜야 한다. 오늘날의 침체, 위축, 마비, 혼수 상태를 보면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데도, 당신들은 어찌서 노객의 말처럼 나는 늙었다고 자백하지 않는가. 헛되이 일시적인 피하 주사로 노쇠함을 덮으려 해도 오히려 피로를 더할 뿐이다.

(〈老人の手〉,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4 월 25 일)

문명을 모욕하는 자

몸에서 양신식 옷을 걸치고 손에는 반드시 양서를 들고, 이야기는 반드시 서양어를 섞으면서 서양의 양양해서 서양 문명의 진의를 얻었다고 떠들어대며, 그렇지 않은 인사를 가리켜 당장 미개하고 야만적이라며 비웃는 무리가 최근에 날이 갈수록 늘고

각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 47 명의 의원이 있지 않은가. 영국의 사회당은 13 명의 의원이 있으며 벨기에의 사회당은 35 명의 의원이 있다. 그리하여 유럽 전체의 사회당 선거자를 계산하면 장년층 만으로도 무려 수백만 명에 이르며, 선거마다 경이로운 비율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이들 각국 지방의회에서 사회당의 원에 이르면, 간단히 그 지방의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

무릇 최근 그들의 국제 운동은 재작년 (1899 년) 3 월 런던 대회, 같은 해 5 월 브뤼셀 대회부터 작년 (1900 년) 파리 박람회 당시의 대회에 이르러 급전직하의 기세로 세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리 대회의 결과로 만국 동맹 본부를 벨기에 에두아르 세제 각국 사회주의의 단결을 견고히 하여 민활하게 일치 운동을 벌이고자 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가 실재 정치에 응용되는 곳은, 벨기에나 뉴질랜드나 런던, 글래스고 등의 시정市政처럼 모두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개 이와 같다. 세계의 대세가 향하는 곳은, 비스마르크의 무쇠 팔이 한생한다 하더라도 어찌 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일본이 어찌 홀로 사회주의 운동의 조류를 탈출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공업이 있고 군비가 있고 빈부 격차가 있고 생존을 위한 고투가 있고 다수의 곤란과 기아, 죄악이 있는 곳에는 사회주의가 반드시 구세주로 도래할 것이다. 아니, 도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이 최근에서 사회주의를 절규하는 것은 그때 때문이다.

우연히 미국의 소설을 펼치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모아나의 뺨은 뚜렷이 홍조를 띠고 그 눈은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쓸쓸히 미소지며, 부디 내가 논쟁적인 것을 용서해줘, 로드군. 나는 많이 살았어. 나는 가난한 자가 억압 받는 것을 봤어. 그리고 부자와 그들의 고용주가 무관심한 것을 봤어. 내가 만약 남자였다면 나는 반드시 사회주의자가 되었을 거야.

아아, 이것을 소설가가 꾸며낸 말이라고 하지 말라. 적어도 어느 정도 이론적 두뇌를 가지고 인자하고 박애하는 마음이 풍부하며 매우 공평한 눈빛으로만 국사회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평범한 부인이라 해도 사회주의 자임을 결코 금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다. 하물며 수염난 당당한 대장부로서 천하에 뜻을 품는 자라면 오죽하겠는가.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도저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우매한 무리가 여전히 고를 골고 잠에 취해 있다면 사회주의의 홍수는 하루 아침에 당신의 침대를 표류하게 할 것이다.

(〈社會主義の大勢〉, 「日本人」 1900 년 (메이지 33 년) 8 월 20 일)

암살론

암살을죄악이라하는것은, 마치분노를더럽고냄새난다고하는것과마찬가지로, 결코아무도이의가없는사항이므로논할필요조차없다. 분노는원래인체조직상자연스러운결과로나오는것이니아무리냄새나고더러운것이싫어서막으려해도어쩔수없는데, 사회가암살자를냥는것도아마도이와마찬가지흐름이아닐까.

전쟁은나쁜것이다. 우리는하루속히전쟁이없는시대가오기를바란다. 결코전쟁을장려해서는안된다. 하지만지금의사회조직에서는때로전쟁이라는나쁜일을저지르지않고서는, 자국의억울함을달래고굴욕을피하며권리와이익을지킬수없는경우가있다. 그런데도덕이이경우에도여전히전쟁을나쁜것이라고배척할정도로나아가지않거나, 국제공법이전쟁을하지않고도각국의행복과권리를보전할수있을만한능력을갖추지않는한, 전쟁은결국피할수없는추세다. 전쟁이결국피할수없는추세라면, 비단그죄를군인한테돌려서그들을흉악한무리라부르고나악한겁쟁이라고손가락질하며입에침이마르도록외치고붓이닿도록써대도, 아무런효과가없음은명백하다. 지금의암살자가나오는것을방지하려는것도마찬가지로이와비슷한점이있지않겠는가.

동맹파업은좋은것이다. 이것을장려하지않아야함은물론이다. 하지만때로노동자가이불량한수단으로핍박과공핍을피할수있는경우가있다. 오늘날의경제조직이노동의가치를수요공급의법칙에따라매기는한, 어쩌면일반노동자가굶어죽더라도절대로불량한짓을하지않겠다고천명한백이와속제같은인물이되지않는한은, 동맹파업은결국피할수없는추세다. 동맹파업이결국피할수없는추세라고한다면, 오로지그죄를노동자에게돌려서그들을흉악한무리라부르고나악한겁쟁이라고칭하며입에침이마르도록외치고붓이닿도록써대도아무런효과가없음은명백하다. 지금의암살자가나오는것을방지하려는것도마찬가지로이와비슷한점이있지않겠는가.

국제공법이국제분쟁을판결할능력이없는것처럼, 경제조직이자본가와노동자를조화시킬수없는것처럼, 개인이나당파의행위에대하여사회의법률도양심도완전히시비와이해를판단하고또한그것을제재할힘을상실하는경우가있다. 또는그힘을상실한것과비슷한경우가있다. 그래서사회의판단과제재에절망한사람은은자가되거나광인이되거나자살을하거나바로암살자가된다. 암살은정말로죄악이다. 하지만암살자를절망에빠뜨린사회는한층더죄악이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들은개인이나당파의행위에대한사회의판단과제재가무력한데절망하여, 스스로사회를대신해서판단과제재를하려는사람들이다. 고로가슴속에한점사적인것을품지않으며, 사회다수의의견에근거하여자기자신의나아갈방향을정하는경향이있음은분명한사실이다. 물론모든암살자가이와같은것은아니다. 그중에는헛된명예를위하여암살하는자도있고, 미쳐서암살하는자도있으며, 사적원한때문에암살하는자도있다. 마치의롭지못한명성을위해전쟁하

뿐이다. 만약미국건설초기에워싱턴이오로지권리와이익을주장하며제 3 대대통령이되는것을받아들였다면, 우리들은오늘날의미국이반드시가공할만한세습전제국이나그렇지않으면혁명을혁명으로잇는프랑스처럼되었으리라고확신한다.

알아야한다, 오늘날일본의부패와타락은우리국민사이의무개념이완전히결핍된데서나왔음을. 먼저의무를다하지않고오로지권리와이익을주장하는페단에서나왔음을. 고로오늘날의일본을구하고자하는자는먼저우리사회와인민에게의무를중시하고의무를다하는마음을환기시키고양성하는것보다급한것이없다. 만인이각자의무를다하여태만하지않는다면, 진정한권리는저절로여러분에게올것이다. 현대의청년들이오로지이것을명심한다면앞길수있지않겠는가.

(〈義務の念〉,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7 월 11 일)

노인의손

노검객모씨가일찍이우리들에게말하기를“젊은시절검을내리칠때, 마음이움직이는찰나에칼이곧바로함께나갔지. 그사이에털끝하나들어갈틈이없었는데, 지금내눈은여전히보이지만손이이를따르지못하니, 아아, 내가늙었구나”하고탄했다. 현재국가의경영을맡은자의태도를보라. 이것과비슷하지않은가. 천하가온통위축되고침체되고마비되고혼수상태가극에달해거의죽은것같은데도누구하나밝은뜻을품는자가없는것은왜일까. 그들이진정으로늙었기때문이다. 비단나이뿐만아니라마음이완전히다하고몸이완전히쇠했기때문이다.

마음이움직여도볼수없고, 보아도그것을통제할수없다. 마치노검객의심기가잘못작용하여수축을자유자재로움직이지못하는것과같다. 이른바정국전쟁에서그들이얼마나애썼는가를보라. 관청의규율확립을위하여그들이얼마나애썼는가를보라. 교육부진에대해그들이얼마나애썼는가를보라. 재정불운에대해그들이얼마나애썼는가를보라. 그런데도결국어느방면에서도조금도효과를거두지못하고위축과침체와마비와혼수상태가여전하지않은가. 그리하여국가와사회는빨리그들노쇠한자들과고별하고나아가려고하는것이다. 웃음을참는다.

의무감

의무감은말은대단히오래되었지만, 뜻은매우새로운것임을알아야한다. 왜냐하면의무감은우리국민에게결핍된것이기때문이다. 아니, 전혀없다고해도될정도이기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지금우리나라의관민官民과상하上下만반의사회를통틀어정당하게의무를다하는자가한사람이라도있는가. 다하고자마음먹고있는자가있는가. 그들은“이러이러한것은내권리다, 여차여차한것은내이익이다”라고말한다. 권리와이익이존재하는곳에는멧돼지처럼돌진하고독수리처럼날아오르려고해도, 일단의무라는말을들으면교묘하게비껴가고책임을전가하려고하지않는자가없다. 관리는인민을꾸짖을권리를크게휘두르고, 인민을보호하고편익을제공해야한다는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었다. 상인은오로지상품의대금을청구할권리만휘두르고, 상품이반드시양호하고견고해야한다는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었다. 주주는오로지이익배당을받을권리를휘두를뿐이고, 사업의번영에힘써야한다는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었다. 의원은오로지예산과법률협찬권을휘두를뿐이고, 그시행이국가와인민의이익과행복이되어야한다는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었다. 선거민또한오로지선거권을휘둘러표를팔뿐이고, 헌정에완전히충실할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었다.

진정한권리는진정한의무를수반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은말할필요도없다. 국가에대한의무를다하지않는자는국민의자격이없다. 사회에대한의무를다하지않는자는사회의일원이될자격이없다. 이미자격이없는자에게권리가있을리없다. 그들이먼저의무를다하지않고오로지권리를주장하고휘두르려하는것은방자함이다. 개인으로보면개인의타락이다. 사회로보면사회의파멸이다. 상하가서로이익을취한다면나라가어려울것이라는맹자의가르침은바로이러한뜻이다.

프랑스대혁명이후에혁명을혁명으로잇고전복을전복으로이으면서정치체제가몇차례바뀌었는지모르지만, 결국견고한건설을이룩할수없었던것은지혜가없고지식이없고용기가없었기때문이다. 다만프랑스사회가오로지권리를보고의무를보지못했기때문이니, 국가와사회는곧타락이아니면붕괴가있을

고, 불법적사육을위해동맹파업을하는것과같다. 하지만진정으로당시사회에절망하여암살을사회의유일한활로삼은사람은명백히많은민생의아군이아니고무엇이겠는가. 송구스럽지만, 나카노오에황자는소가노이루카(蘇我入鹿, ?~645)의암살자였다. 야마토다케루노미코토는가와카미노다케루(川上梟帥)의암살자였다. 그들이어찌암살이상도를벗어났음을알지못했겠는가. 다만당시사회의법률도양심도이에대해아무런제재도할수없는것을보고서스스로사회를대신하고자했던것이다. 그리하여이루카를죽이고다케루를치는것을사회다수의의견이라고확실했던것이다. 과연천하는이암살에손뼉을치며통쾌하여졌다. 그렇다. 당시의법률, 도덕, 사회조직에서이거사가있었던것은어쩔수없는추세였고, 인력으로도저지하지할수없는것으로서오히려하늘의뜻이라고할수도있었다.

그렇다면메이지明治인오늘날의암살은어떠한가. 암살은도저히근절할길이없는가. 우리들은따로주장이있다. 메이지인오늘날도마찬가지로사회가개인이나당파의행위에대해정당한판단과제재의힘을잃어버린시대다.

호시도루암살사건을보라. 그를가령올바른군자君子였다고해보자. 이올바른군자를보고공공연히도적이라해도하고악한이라고부르는언론에대해서는, 사회가이것을옳지않다고해서충분한제재를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아닌가. 하지만사회는이것을알면서도제재할수없었던것이다. 이와반대로, 호시를가려나쁜도적이라고해보자. 사회는재빨리선고를내려서결코그가공인으로나서지못하게해야하지않는가. 그런데도사회는이것을알면서도제재할수없었던것이다. 세상사람들이이미사회의판단과제재를기대할수없어서사회에절망한끝에, 오로지자기가보았을때사회다수의복리라고믿는것을단행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기시작하면, 곧암살자가나오는것이아니겠는가. 암살자도본래암살이나쁜행위임을알았다. 하지만그는무능력한사회에의해다수의복리가훼손당하는것을방관하는것은암살보다더큰죄악으로보았던것이다. 이것이어찌고대순교자 martyr 의마음이아니겠는가.

그러므로우리들은민는다. 호시의암살은호시자신의행위도원인일것이다. 이바소타로(伊庭想太郎, 1851~1903)의어리석음도원인일것이다. 신문등의언론도원인일것이다. 하지만그들을이지경까지이르게한근본원인은사회가판단과제재의힘을잃은데있다고하지않을수없다.

사회가판단과제재의힘을잃은것은부패와타락이고질병이되었기때문이다. 그들은공의公義를모른다. 공익을보지않는다. 있는것은오로지자기한몫의이익뿐이고권세뿐이다. 호시의행위에대해서는, 자기에게이익이되면칭찬할뿐이고자기에게불리하면현뜰을뿐이다. 이런식으로무슨판단과제재를할수있겠는가. 절망한자가나오는것은피할수없는일이다. 우리들은두려워한다. 사회의부패와타락이오늘날의추세로흘러막을길이없다면, 비단한사람의암살자를내는데그치지않고장래에얼마나많은허무당과많은무정부당을내게될지아직알수없다. 이것은마치상한음식을먹고급성설사를하는것처럼오싹하지않은가.

바로그렇다. 단지군인을협박하는것으로는전쟁을방지할수없다. 단지노동자를책망하는것으로는동맹파업을방지할수없다. 암살자를공격해도, 현사회의부패와타락을구제하여판단과제재의힘을회복하지않는다면, 어찌암살을근절할수있겠는가.

그렇다면부패와타락을구제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가. 다른길이없다. 지금의경제조직을근본적으로개조하고의식주에서자유경쟁을폐지하는데있다. 생활의공공을제거하고금전송배풍조를몰아내는데있다. 만민이평등하게교육받을자유를누리고, 사회적지덕을증진하는데있다. 만민이평등하게참정권을누리고국가사회의정치·법률을소수인사가독점하지않는데있다. 다시말해근대사회주의를실행하는데있다. 사회주의를실행할수있다면, 사회는충명한판단력과효과있는재재력을발휘하게되어, 암살의죄악은절로근절되기에이를것이다. 이것은경세經世의군자가마땅히숙려해야하는것이아니겠는가.

(〈暗殺論〉, 「萬朝報」 1901년 (메이지 34년) 6월 27일 ~ 28일)

무정부당제조

미국대통령이무정부당에게살해당한사건은우리국민들이반면교사로삼기에충분하다. 왜냐하면우리사회도지금활발히무정부당제조준비에급급하기때문이다.

나는잠시무정부주의의시시비비나이해득실을따지지않으려한다. 다만이이념을놓고이와같은흉악한수단을강구하게만드는원인을생각하면, 그책임은다른곳으로귀결되는경우가없지않다. 어떤이는그것을미신이라고하고, 또어떤이는그것을광기라고하고, 또어떤이는그것을공명심때문이라고한다. 그렇다. 미신도있을것이다. 광기도있을것이다. 공명심도있을것이다. 하지만그들로하여금그토록광대한단결을이루어그토록군계비밀을지키고, 그토록대담하고흉악한수단으로나가고도전혀후회하지않을정도로미신처럼만들고열광하게만드는원인을생각하면, 어찌대단히유력한동기가그들을몰아세웠다고보지않을수있겠는가. 유력한동기란무엇일까. 오늘날의국가사회에대한절망이그것이다.

오늘날의국가사회조직이일반인들에게얼마만큼복리를가져다주고있는지는의문이다. 정치자유, 학술진보, 기계발달, 풍부한자본, 생산증가는피상적으

지만요즘사람들은사업을번창시키는데급한 나머지, 거의전염병의유행을바라는듯하다.

무릇굶거나포식하다가잠에빠져과거도없고미래도없이아득한꿈처럼생을마감하는것은금수나어패류다. 인간이일정한이상과목적가지고그명령에따라진퇴하고움직이고멈추는것은확실히금수나어패류와의차이를규정하는요건임에틀림없다. 그러므로개인은개인의이상과목적이없어서는안되며, 사회는사회의이상과목적이없어서는안된다. 동서고금을통틀어개인과사회가좀더많이진보하고번영하는것은, 그이상과목적에대해좀더많이열성적이고충실한데에서기인할뿐이다.

세상에는부정한목적에대한부정한수단이있다. 이것이사회에서용인될수없음은물론이다. 만약원대하고송고하며또는필요불가결한 목적을위해부정하고추악한수단을강구했다면, 그것때문에원대하고송고한목적과이상을벌하는것은가혹하다. 상투를틀고 40년을사방으로돌아다니면서뜻을얻지못하다가마침내상도를벗어난행동을하고만중국의호걸처럼, 그수단은몹시해독듯은오히려가련한것이다. 먹고살기위해도독질을한빅토르위고의소설속인물처럼, 그수단은중오할만하다고해도그정은오히려가련한것이다. 부정하고추악한수단에대한책임은목적이아니라따로물을곳이있다. 그것은주로사회나개인이몽매하여그들의목적에혹독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우리들이처음부터큰공훈은사소한잘못을돌아보지않는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지만, 하나의목적과이상을위하여몰려서기도하고나아가기도하고죽기도하고살기도하는것은인간사회의본분임을확신한다.

지금우리국민의실상이어떠한지보라. 하나의원대하고송고한 목적을위하여진퇴하는자가있는가. 언제하나의원대하고송고한 목적을위하여진퇴한적이있는가. 그이상과목적에열성적으로충실하지않으면, 마침그것을가지고있어도홀연히도중에상실하거나기각되고마는것이다. 수단의난이도와속도에따라몇차례 목적을경신하는것이다. 이것은 목적을위하여수단이있는것이아니라, 수단을위하여 목적을세우는것이다. 다시말해목적과수단이완전히전도되었다. 심한경우에는아무런목적도없으면서목적에있는것처럼가장하여들개처럼방황하고장구벌레처럼준동하기시작한다. 생각해보라. 정당의목적은이념과정견의실행이아닌가. 하지만오늘날의정당은당세확장을위하여이념과정견을완전히희생하지않았는가. 정치가의목적은인민의이익증진이아닌가. 하지만오늘날의의원정치가지위와녹봉과관세를유지하기위하여인민의이익을완전히희생시키지않았는가. 정치활동가도그렇다. 교사도그렇다. 승려도그렇다. 학자도그렇다. 그들은목적과수단을완전히전도시켜버렸다. 목적에충실하고열심인것이아니라오로지수단을표준으로삼아진퇴하는국민은책임없는국민이다. 식견없는국민이다. 의지가박약한국민이다. 경솔하고가벼운국민이다. 남을속이고자신도속이는국민이다. 예로부터이와같은국민치고 쇠퇴하여멸망하지않은예가없으니근심스럽지않은가.

국민은 여전히 말세적 현실을 슬퍼하지 않는다. 무릇 우리 정계의 부패, 경제의 불안, 도덕의 타락이나 날이 심해져서 모든 것이 국가를 위급한 운명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의 마비가 이러한 지경이라면 끝났다 고보아야 할 것이다. 고대로마는 이리하여 멸망했다. 오늘날 청나라는 이리하여 멸망하려 한다. 소식(蘇軾)은 “천하의 근심 중에 그렇게 될지 모르고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렇게 될지 모르고 그러는 것은 팔짱을 끼고 난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 국민은 팔짱을 끼고 난을 기다리는 자가 아닌가.

무릇 흥분제를 과다 사용하는 것은 심기를 일시에 흥분시키므로 좋지 않다. 얼마 후에 혼미하고 졸도하여 인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겨우 이것을 각성하면 마치 여우에 홀렸다 깨어난 것과 같다. 지금 우리 국민은 청일 전쟁에서 과도하게 흥분했다가 갑자기 엄청난 권태에 빠져 지쳐서 쓰러진 채로 앞뒤를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동안에도 독이 당신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 독은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당신은 마비되어 알지 못하고 헛되이 주식이 오르는 꿈을 꾸다.

30년 전 자객이 밤에 교토기야마치木屋町の여관에서 사카모토 료마, 나카오 카신타로 등 두 무사를 찌르고 달아났다. 잠시 후에 하우스타를 부르며 아래를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 나카오가 상처를 어루만지며 탄하기를, “지사는 홀로 고통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평온하게 행락을 즐긴다. 세상은 다양한 것일까”라고 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를 깊이 탄탄한다. 아아, 국민이 빨리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국가의 앞날은 어찌 될까.

(〈國民の癡痺〉, 「中央新聞」 1897년 (메이지 30년) 5월 17일)

목적과 수단

천하에 근심스러운 것 가운데 사회의 인민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전도轉倒하는 것보다 심한 것은 없다. 사람이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먹는 데 급한 나머지, 거의 먹기 위해서 사는 느낌이 든다. 무인이 싸움을 익히는 것은 혼란한 세상을 고쳐 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공명에 급한 나머지, 거의 국가의 변란을 이용하는 듯하다. 의사는 병을 고치기 위함이다. 하

로 보면 일반인들의 생활을 고대 봉건 시대의 왕후보다도 더 크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실체는 이와 반대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졌다. 생활은 점점 더 곤란해졌다. 빈민은 점점 더 증가했다. 죄악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많아졌다. 서양인은 일찍이 입바른 말을 하여 의회는 조세를 늘리는 도구라고 했다. 조세를 늘리는 도구가 인민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정치도 학술도 기계도 자본도 생산도 오로지 왕후를 이롭게 하고 부자를 이롭게 하고 관리를 이롭게 하고 군인을 이롭게 할 뿐, 추호도 일반인들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국가 사회에 절망하는 다수가 생겨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추세가 아닐까.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무정부당뿐 아니라 각계급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노동보호 주장도 일어났다. 만국평화회의도 제창되었다. 공산주의도 설파되었다. 사회주의 운동도 전개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앞길에 찬란한 희망을 크게 품고 지금의 병적인 현상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다. 무정부당도 본래는 이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국가 사회의 타락과 죄악과 곤란한 생활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결국 앞길의 희망을 포기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한 자들이 되었다. 세상에 절망한 자만큼 용기 있는 자가 없고 대담한 자가 없으며 흉악하고 사나운 자가 없다. 설령 그들이 흉포함을 들고 공명심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흉포함에 기대지 않고는 공명을 얻을 방도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했던 것이다.

취와 낚은 옷이 많은 곳에는 흑사병이 쉽게 전염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불결하여 절망이라는 취와 낚은 옷이 많은 곳에는 무정부당이라는 병균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하여 무정부당은 유럽 대륙에 많았다. 하지만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단히 고심했던 영국에는 그 해악이 심하게 창궐하지는 않았다. 지금 미국 또한 이 흉포함을 맛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정부당이 만연하는 해악이 공공할만한 것임을 알려주는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최근 정책이 얼마나 무정부당의 전염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충분히 상상하게 한다.

한편 우리 일본을 보라. 우리 일본의 수도, 의회, 정당, 교육, 경제, 종교는 얼마나 국민 전반의 복리를 증진하고 있는가. 우리는 화족의 증가를 보았다. 우리는 벼락 부자가 되어 용상인을 보았다. 우리는 군인의 영광을 보았다. 하지만 국민 대중은 시시각각으로 염증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빈곤해지고 있지 않은가. 염증이 빈곤은 공공할만한 절망으로 한발 한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아시오足尾 광산 광독피해지의 인민을 보라. 고가네가하라小金が原 개간지의 인민을 보라. 그들의 고생이나 염증이나 인내는 지금 거의 극에 달했다. 두세 명 인사의 동정심이 있을 뿐 국가와 사회는 완전히 그들을 버렸다.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오로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고, 무정부당으로 만들지 않는 것도 오로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하나를 보면 만사를 헤아릴 수 있다.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란 법은 없다. 그들에게 이토록 냉혹한 사회는 모든 방면, 모든 계급에게도 마찬가지로 냉혹할 수밖에 없다. 아시오와 고가네가하라는 무정부당을 제조하고 돌아보지 않는 국가가 어찌 일본 전국에 무정부당을 제조하기를 꺼리겠

는가. 만약우리국가와사회가오늘날과같은상태를막지못한다면, 나는머지않아 일본도무정부당산출지에등극할것임을믿는다. 아아, 무섭고도두려운일이아니겠는가.

그렇다. 무정부당의해악은가공할만하다. 하지만그들을이렇게만드는국가와사회의해악은더욱더가공할만하다. 이것이지안경찰법하나로무정부당을방치할수없는이유다.

(〈無政府黨の製造〉,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9 월 20 일)

위험한국민

외교는막중하다. 내치는이보다더막중하다. 다사다난한외교는위험하다. 문란한내치는이보다더위험하다. 그리하여내치에서국민의모든이익과행복을오로지외교의희생으로삼고자하기에이르면그국가가혁명이나멸망으로끝나지않는경우가거의드물다. 이것은국민이지금깊이경계해야할사항이다.

로마의민정은내치의부패때문에무너졌다. 백전백승의율리우스카이사르도 로마를구할수없었다. 카르타고는국민의타락때문에망했다. 15 년간이탈리아전역을다스렸던한니발도나라를구할수없었다. 예로부터외적때문에멸망한국가가적지않다. 하지만그들이멸망으로치달을때내치의문란과부패가반드시앞서지않는경우는없다. 적어도내치가문란하고부패하지않았다면백만외적이압살해온다하더라도두려워할필요가없다.

무릇외적은무력으로소탕할수있다. 내치의부패와문란이극에달하면무엇으로소탕할수있겠는가. 혁명이아니면멸망만이있을뿐이다. 그러므로국가가무력을지지하고무위를떨치는이유도오로지국민의원기가왕성하고재부가풍요로운데에서나오지않으면안된다. 실로내치가정제되고도의가두텁고풍속이너그러워농·공·상인이근면하게일할수있어야비로소무위를떨칠수있다. 만약그렇지않고인심이타락하고도의가퇴폐하고행정과재정이문란하고상공업이위축되고재산이고갈되는것이지금의조선이나중국같다면, 설령백만의뛰어난스승과견고한군함이있어도무슨쓸모가있겠는가. 그러므로타락한내정은다사다난한외교보다도훨씬위험한것이다.

애려하느냐”고하며당장에해밀턴과관계를끊은것을생각한다. 아아, 우리나라의청년가운데희망과자유, 본령을위하여눈앞의영리를버리는버크처럼될수있는사람이과연몇이나있을까. 우리들은이상의일본이완전히물질의일본으로타락해버린것을보고, 국가의앞날이불안함을마음깊이느낀다.

(〈理想なき國民〉,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5 월 14 일)

마비된국민

물과불이몸에닿아도뜨거운지차가운지도모르고, 칼과살이찔려도아픈지가려운지도모른채흐릿한정신으로잠들지않고서꿈을꾸는, 흡사중산中山의술을마시고천일을취해있는듯한것이우리국민의오늘날상태가아닌가. 그들은정신적으로마비되어버린것이다.

본래우리국민은감성이매우예민하고정열은가장왕성하다고칭찬받는다. 인의仁義를위하여자기한몸돌보지않고충애忠愛를위하여죽음을가벼이여기는데이르면거의광인같은정도다. 이러한광인들이자주배출된것은우리일본국사國史의광채로서우리가군자국임을자랑해마지않는까닭이었다. 보라. 우리가청나라를이긴것은본래육해장병들의지혜와용기덕분이지만, 절반의공과는우리국민모두가열광적으로대처한데있다. 전후에치롤씨 (Ignatius Valentime Chirol, 1852~1929) 가청나라를떠나서일본으로건너가니날이밝은것같은느낌이든다고경탄할만큼명예를떨칠수있었던것은오로지우리국민이애국심을실천하는기운이유례없이충만했기때문이다.

그이후불과 3 년이지난오늘날, 마치불과같았던애국심의기운과열광은지금어디로갔는가. 정부는황금으로우리헌정을유린하고, 의원은대의의책임을헛되이하여권세와이익에광분한다. 하지만국민은여전히부패에분노하지않는다. 국민이재산을내던지고목숨을걸어얻은전승의명예는진흙탕에처박아두고문명의나라는홀연히야만의땅이되려한다. 하지만국민은여전히퇴보를우려하지않는다. 정부는상공업보호에목숨을걸고일종의중상주의정책을시행하여자기사욕을채우느라급급하다. 하지만국민은여전히위태로움을느끼지못한다. 재상이부덕하여풍속이나날이타락하여남편을죽이고부모를죽이는범인이나오는데도

이상없는국민

건축공이벽돌을쌓을때, 자전을쉬지않는땅과직각을이루어조금도오차가없는것은본래기대하기어렵다고하더라도, 되도록그각도에다가가려고하지않으면안되는것처럼, 인간은당장에이상에도달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되도록그것에다가가려고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이것은칼라일이 『영웅숭배론』에서설파한바가아닌가. 그렇다. 국민의이상은단지국민의정신적건축의법도일뿐만아니라, 사상적의식주다. 그러므로이상없는국민만큼불쌍한것이없다. 그들은바로건축의법도를모르는건축공이기때문이다. 의식주를공급받지못하는빈민이기때문이다.

우리일본이과거 50 년간, 미증유의진보를이룬까닭은우리국민이원대하고숭고한이념과이상을품고오로지그지도에따라용맹정진하여몰려서지않았기때문이다. 이이념과이상은한때존황양이라명명되었다. 한때는개국진취라명명되었다. 한때는민권자유라명명되었다. 때와장소에따라형태와이름을달리했어도, 모두원대하고숭고한이상이일관되게있었기에동양의일대문명국을건설할수있었다. 우리국민이이념과이상에충실했기에, 때로는낭인으로서, 때로는정치범으로서, 때로는정당인으로서, 때로는상공업자로서물불안가리고위세와무력에굴하지않고생명을걸고재산을내던져서찬란하게빛나는메이지역사를이룰수있었던것이다. 그런데지금언어어떠한가. 그들처럼이념과이상에충실한국민은이미쇠잔해져서행동하기힘들고, 이를잇는신국민, 즉요즘청년들의뇌리에는고원한이념과사상은편린도찾을수없다.

보라. 지금천하에는영원한이상이없고다만눈앞의욕욕이있을뿐이다. 시시비비를보지않고이해득실을볼뿐이다. 도의를보지않고금전을볼뿐이다. 그리하여 50 년동안자유, 평등, 박애를향해맹렬히나아간일본이이제오히려전제, 계급, 이기적己를향해달리는것이보이지않는가. 그극은바로부패이고타락이니지극히개탄할일이아닌가.

우리들은이미죽어가는노인에게이념과이상을실추시킨책임을묻는것이쓸모없는일임을안다. 다만대개지금의청년이라도한이념도없고이상도없이취생몽사하는자들이니, 아아누구와함께천하를경영할까. 에드먼드버크 (Edmund Burke, 1729~1797) 가나이 30 에여전히미천한한낱서생으로글을팔아겨우생계를유지하고있었을때, 우연히해밀턴 (William Gerard Hamilton, 1729~1796) 이 300 파운드의연봉을주며붓을꺼게하고저작활동을그만두라고하자, 버크는분연히“내희망을가로막고내자유를박탈하여영원히내본령을없

그런데지금우리국민은이위험을무릅쓰고나아가고있다. 하지만자각하지 못하고있는것은아닐까. 청일전쟁대첩은당시우리내정이아직오름세에있고기강이탄탄하고원기가왕성하고재산이풍부한결과였다. 하지만전후에우리국민은그뿌리를잊고끝만을쫓아오로지군대가많은을자랑하고군함의크기를신뢰하여, 국가의영구불변의업이라여긴다. 그리하여갈수록무력을써서국기國旗의영광을빛내고국위를드높이려고한다. 그성과를어찌알겠는가. 인심이극도로타락하고재산이고갈되어사회적·정치적으로최악과빈곤이천하에넘쳐나고국기의영광은진실로한순간의허영이고국위는한순간의허위에지나지않다는것을어찌알겠는가.

보라. 의회에서만취하여다수가의결해도나는그에따르지않겠다고망언을하는재상이있다. 중의원은헌법을논의하는장이아니라고갈파하는대신이있다. 헌법은대권의일부다. 폐하는그것을따를필요가없다고외치는의원이다. 한편에서도네가와利根川강개축 6 백만엔을의결하고한편에서그수원水源의산림을한날부호에게벌채하게하는정부가있다. 시정을장악하여자기집의이익을도모하는기구로여기는도당이있다. 지방의회에쿠데타를일으키는지사가있다. 당원과결탁하여죄인을비호하는경찰이있다. 우리군대에마소도먹지않는나쁜음식을보내는군관료가있다. 뇌물로미국의양을줄이는어용상인이있다. 위조주식은항상시장에유행하고있다. 은행은자꾸파산으로치달고있다. 자치제는완전히파괴되었다. 도의는완전히사라졌다. 경제계는완전히무정부상태가되었다. 그러므로도도하게저지하지못한다면국가가무엇으로설수있겠는가.

러시아가만주와조선을침략하는것은위험하다. 하지만우리무력은그들을간단히소탕하기에충분하다. 내치가부패와문란에이르면그것보다더위험하므로내치의구제가그것보다더급하다는것을깨닫지않으면안된다. 우리나라는여전히열성적지사와비분강개하는청년이 많다. 하지만우리들은그들이뿌리를잊고끝으로달려, 외교때문에광분하고전쟁때문에광분하여모든행복과이익을희생하고돌아보려하지않음을안타까워하지않을수없다. 하물며다사다난한외교와국위를드높이는것은예로부터의롭지못하고부정한전제정치가가항상국내의인심을전향시키고현혹시켜하룻밤권세를훔쳐이욕과야심을채우는도구로사용하지않았는가.

세상의열성적인지사청년들이여. 이제국가백년의대우환은외부에있는것이아니라오히려내부에있음을알라.

(〈危險は内に在り〉,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4 월 2 일)

월필정책

영국사를 읽다가 로버트 월필 경에 관한 사항에 이르러서 글피탄식한다. 그는 의원매수를 한 탓에 천하의 공격과 매도를 한몸에 받았고, 그 주검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자들에게 채찍질당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상과 자세를 비교해 보면 더욱더 전율할 만 한 것이 있음을 느낀다.

월필이 매수를 한 것은 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당시 그는 독으로써 독을 제압하려 했다. 왕권은 이미 쇠퇴했지만 국민 여론은 아직 진작되지 않아서 천하의 위력은 오로지 의회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조직은 과두제적이고 의사(議事)는 비밀스럽고 권력이 이미 치지 않는 곳이 없을 때,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의 발호를 억누를 길이 없음을 알았다.

대개 16세기 이전의 의회는 완전히 왕권이 좌우하는 곳이었으므로, 인민이 선출하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때에 정치가는 오로지 왕가의 신임을 얻어 곧바로 그 뜻을 이루는데 만족했다. 찰스 3세 시대로 내려오면, 의회의 권위가 왕성해지고 왕권은 오히려 의회에 좌우되었다. 그리하여 인민이 선출하지 않은 의원이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권세를 이용하는 데 꺼릴 것이 전혀 없었다. 아니, 인민이 선출한 의원이라 해도 오늘날처럼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유권자들은 날마다 연설, 토의, 투표 여부를 듣고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론의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다. 그런 탓에 당시 정부는 일을 벌이고자 하면, 왕가의 신임도 이미 신뢰하기 힘들고 인민의 후원 또한 기뻐할 만한 것이 못되니, 오로지 하원의 숨소리에만 사가 달려 있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원에 뇌물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니, 의원도 모두 성인군자가 아니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뇌물을 배척할 재력이 없었다. 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심히 정계(政界)의 공덕이 부패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 제도를 보라. 월필 시대와 같은 장애는 전혀 없다. 정부는 성명(聖明)보필의 책임을 질 뿐이지, 중의원의 결의에 따라 진퇴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중의원의원은 월필 시대와 달리 모두 인민이 선출한 의원이 아닌가. 그리하여 비리에 빠진 것을 보면 몇 번이든 해산을 주청(奏請)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정치가는 적어도 군주의 신임과 인민의 후원을 얻으면,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중의원의 전횡적 반대를 우려할 필요는 추호도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원매수, 당원임명수단이 아니면 자신들의 의견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군주의 신임이 없고 인민의 후원이 없는 탓인가, 기획이 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탓인가. 아니면 용기 있는 결단을 못 내리고 지능이 없는 탓일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정치가의 자격이 없다. 그 무력함은,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일없이 녹록(祿)만 받아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물며 그 정책이나 날이 관민의 부패를 촉진시킨 죄악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무릇 이러한 정치가가 의원매수 같은 부패한 수단을 강구하는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나는 우리 국민의 무력함을 깊이 슬퍼한다. 아

비정치론

정치를 믿지 말라. 정치는 만능이 아니다. 사회의 발달과 국민의 번영이 오로지 정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정치가 사회와 국민에게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불가결한 요건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대의 정치의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는 확실히 그 사회와 국민이 지닌 성격과 의지의 반영이다. 단지 그 사회와 국민이 스스로 편익이라 여기고 선량하다고 믿는 것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그 기관에 질하는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사회와 국민이 질서도 없고 덕도 없고 이상도 없고 신앙도 없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루살이나 구더기 같다고 할 수 있는가. 행해지는 정치가 임시변통식 정치일 뿐이다. 호도하고 미봉하는 정치일 뿐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일 뿐이다. 내각과 가의회를, 국민과 사회를 그 저 하루살이나 구더기처럼 곱들거리며 살게 하는 정치일 뿐이다. 현재 우리 일본의 정치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가.

우리 일본의 정치가 더욱더 곤란에 빠지는 것을 보라. 우리 외교가 착실히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라. 상공업의 날에 위축되는 것을 보라. 도덕의 달에 퇴폐하는 것을 보라. 우리 정치의 힘은 이런 현실을 얼마나 구할 수 있는가.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는가. 원로나 의원이나 정당원이나 학자가 논객이 수년 동안 문제를 고민하며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시행하는 것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더욱더 해로워지고 있다. 폐단이 시시각각으로 늘어나는 것이 보일 뿐, 조금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그들은 정치가 만능의 힘을 지녔다고 여기고 정치에만 의지하여 만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교도 정치에 지배되고, 교육도 정치에 지배되고, 상공업 경제도 모두 정치의 은혜를 입게하려고 한다. 왜 모르는가. 지금의 정치는 우리 국민의 부패와 타락을 늘리는 기관의 기쁨에 지나지 않음을.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헛되이 진흙을 파서 파도를 일으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 사회의 발달, 국민의 번영을 희구하는 자는 오늘날의 정사(政事)에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무익한 것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정치가 선량하기를 바라기 전에, 우선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덕의가 있게 하고 신앙이 있게 하고 이상이 있게 하고 제재가 있게 하고 신용이 있게 하고 그런 뒤에 비로소 정치를 행해야 한다. 그렇다. 오늘날의 현실을 개탄하는 어진 지식자들은 정치 이외에서 전장(戰場)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하의 정치에 광분하는 청년들이여, 크게 숙려하기를 바란다.

(〈非政治論〉, 「萬朝報」 1899년(메이지 32년) 1월 13일)

그들은또한대개우리문학은너무섬세하고우미하고화려하여, 웅대하고고원하고비장하고준수한대작을전혀볼수없다, 그러므로전쟁을유희고용사를노래할 필요가있다고말한다. 이런목적은진정한문학을위해어느정도참된것이라할수있다. 그리고예로부터불후의문학이전쟁이나용사를소재로하는예가많은것도알고있다. 하지만그것들이불후의명작인가닭은동물적투쟁을고무하고찬탄했기때문이나니라진정성에있다. 선함에있다. 아름다움에있다. 그리고이고상한생각을그리는것이희대의천재임을알아야한다. 그렇다. 예로부터뛰어난대작이라하는것은제목과소재를취하는데전쟁을필요로하지않는다. 전쟁장려를필요로하지않는다. 누가국기를노래하라고하는가. 누가조국을칭송하라고하는가. 보라. 호메로스는단지그리스를위해노래하지않았다. 셰익스피어는단지영국을위해이야기하지않았다. 단테는단지이탈리아를위해노래하지않았다. 햄릿이나리어왕이나오셀로가불후의대작인것은영국의애국심을격려하기때문이나니며, 호메로스의이름이숭고한것은아킬레우스의분노와개선이아니라헥토르의고뇌와죽음에있다. 그렇다. 그리스문학이중후한것은티르타이오스의잃어버린군가에있는것이아니라, 비극에담긴깊은동정심과사상가의침잠에있다. 그렇다. 그들은국가적이지않고세계적이다. 일시적이지않고영구적이다. 본능적이지않고심리적이다. 살벌하지않고대단히자비롭다. 국기의영예가아니라사회와인생의광명이다. 적에대한증오가아니라이웃에대한동정이다. 그러므로위대할뿐이다.

무릇웅대하고고원하고준수하고비장한것을찾는다면굳이전쟁을칭송할필요는없다. 문학의바이블을보라. 범화경을보라. 평화를씨실로삼고박애를날실로삼는다. 누가이것을웅대하고고원하지않다고하겠는가. 두보와이백은전쟁의참상을묘사하여인민의평화를희구했다. 누가그것을준수하고비장하지않다고하겠는가. 나는본래전쟁을유희지말라고하는것이아니고용사를찬미하지말라고하는것이아니다. 우주삼라만상은자유롭게제목을취하고재료를뽑고스스로책임진다. 전쟁도괜찮다. 평화도괜찮다. 무용도괜찮다. 검이나창도괜찮다. 주판도괜찮다. 베이징도톈진도괜찮다. 하코네箱根도가마쿠라鎌倉도괜찮다. 다만허위적, 선동적, 야만적이지않고진선미를갖추고자비롭고세계적이고영구적인것을기약하지않으면안된다. 만약헛되이전쟁을장려하고군인에게아부하는것을능사로한다면, 우리문학을멸망시키는것은세상이말하는전쟁문학일것이다. 그렇다. 지금우리문단은백명의키플링이필요한것이아니라, 한사람의톨스토이를갈망한다. 작가와비평가여러분들은어떻게할것인가.

(〈所謂戰爭文學〉, 「日本人」 1900 년 (메이지 33 년) 9 월 5 일)

니, 이것은바로우리국민의부패와사회의타락을증명하는것이아닌가. 우리의회는월폴시대처럼의사議事진행을밀실에서하지않는다. 국민은밤낮의회의행동과말을보고듣지않는가. 의원은모두국민에게진실을호소하여선출된것이아닌가. 그런데절개를꺾고도리를팔아오로지황금을위해서국민의참정권을희생하는것을엄연히의심하지않는것은왜인가. 매콜리경이예전에월폴을평하여“그가널리부패수단을행사한것은의심할여지가없다. 하지만이것이그가받은모든매도와공격에상응하는것인지는의문이다. 사람이시대를초월하는덕성을갖추지못한탓에꾸지람을받는것은가혹하다. 선거구민의표를사는부도덕함은마치의회의원의표를사는것과같다. 양민에게 5 기니아를주는후보자는의회의원에게 300 기니아를주는사람과똑같이죄악을저지른것이아닌가”라고했다.

이미정세를달리하는우리의현내각에서는이와같이관대할수는없다. 하지만 300 기니아를받는국민은의회의원을심하게제재할수는없다. 후세의역사가가 만약매콜리경처럼오늘날의매수정책으로이시대의부패상을추정한다면, 나는우리국민이어떤말로답할지모르겠다.

사물이부패하면벌레가생긴다. 한무리의벌족閥族정책은부패에생긴벌레다. 의회도그렇고국민도그렇고, 이미부패와타락이극에달해주의도없고이상도없고혼미한상태로황금과이익을쫓아내달린다면, 사쓰마薩摩郡조슈長州郡, 이토히로부미든오쿠마시게노부 (大隈重信, 1838~1922) 든, 내각을몇차례바꾸고의회를몇회거쳐도, 대의제도는오로지형세만유지하고월폴은여전히족적을꿇지않을것이다. 기세가극에달하면번한다. 이어서오는것은바로혁명이다. 이것은고금의역사책들에나타나는일치된견해이고지사들이경계해야하는것이다. 월폴은최고의연설에서“반대당은세단체다. 하나는왕당, 또하나는이른바애국자인민당의불평분자, 나머지하나는청년 boy 이다”라고말했다. 월폴내각의전복은청년 boy 의힘으로이루어졌던것이다. 피트의허나존슨의붓은모두당시월폴의보이가아니었던가. 그렇다. 오늘날의흐름에서단지드높은이념과이상을품은순결하고활발한청년들이일어서지않는다면, 우리사회를부패와타락속에서구할수없을것이다. 아아, 하늘은국가의앞길을우리청년의어깨위에올려놓았다. 집에들어박혀책만읽는사람은당장베개를건어차고일어서야할시절이아닌가.

(〈ワルポール政策〉, 「中央新聞」 1897 년 (메이지 30 년) 9 월 16 일)

일본의민주주의

“옛글을볼때마다생각하네, 내가다스리는나라는어떠한가를.”

“능라비단을겹겹이입어도생각나네, 추위를감싸줄신령조차없는신세가.”

아아, 인민을불쌍히여기고국가를걱정하시는깊은마음이어찌이와똑같겠는가. 우리는메이지(明治) 천황이지으신두편의시를볼때마다감개가무량해서 눈물이복받친다.

남몰래생각건대동서고금의영주英主·현군賢君의덕이사해에넘치고은택이천년을떨치는것은, 모두인민을걱정하는깊은마음에서나오지않은경우가 없다. 그리하여우리조종열성祖宗列聖이오야시마에군림하여면면히이온 2500 년동안이취지와정신은일찍이하루도쉽이없었다. 저닌토쿠천황이“백성들의부자가곧집의부”라고하셨고, 엔기延喜치세(901~923) 의다이고천황이 겨울밤에스스로옷을벗으셨던일등은실로이취지와때를만나크게떨쳐일어난 것이었으며, 우리들은이취지와정신을이름하여완전한민주주의라부르는것이매우적당하다고믿는다. 본래그렇다. 그리하여우리의이른바민주주의가역사상유례없는광휘를발한것은, 금상今上의유신중흥때였다. 무진년(1868) 3 월에황송하게도친히천지신명께서약하신〈5 개조서약문五箇條의御誓文〉을보라. 모든중요사항萬機를공개된논의公議로결정해야한다고하고, 상하가마음을하나로합해야한다고하고, 관무官武가하나가되어서민에이르기까지그뜻을이루게한다고하고, 천지의공도公道에기초한다고하고, 지식을세계에서취한다고한다. 어찌이것이이른바민주주의의신수神髓와정화精華를완전히발휘한것이아니겠는가. 우리들에게함부로건강부회한다고말하지말라. 메이지 6 년(1873) 에기도다카요시가유럽에서돌아와당국자에게건넨의견서일부는서약문의뜻풀이로볼수도있다.

무릇정규政規는그나라의국시에따라정한다. 조정관리들의억측에따라히되이우열을가릴수없다. 천하의대소사는이것을조치의준칙으로삼는다. 사려깊고원대한기약은억조사민億兆士民이누가감히천자의깊은뜻을황송히받들지않겠는가. 다만, 문명국은군주전제를하지않고, 전국의인민이일치화합하여그뜻을이루어국무를조례하고, 그후에재판을과하고그것을한부서에위탁해서명명하기를정부라한다. 관리에게각각그일을맡게한다. 관리들은또한각각일치화합하여민에따르지않는다면감히조치를멋대로할수없다. 정부의엄밀함은이와같다. … 황송하게도전날의조지詔旨는천하를천황가문의사유로삼지않고, 백성과함께있고백성과함께지킨다고선언했다. 대개천하의사무가천하의인민과관련이없는것이하나도없으니, 천하의인민도스스로천하인민이다할의무가있다. 어찌그냥순순히조정의명령을듣고분주히움직이며명령에따라행동하기만할수있겠는가.

만나는해로움이더심각함을두려워한다. 왜냐하면세상에서말하는전쟁문학은 대개전쟁을장려하고군인에게아부하는도구가되는경향을띠지않는경우가드물기때문이다. 나는이점에대해지금의작가와비평가에게속려를촉구해야한다고느낀다.

그들은활발하고장쾌하게붓을휘둘러전쟁을칭송하고군인을찬탄하는것이국민의애국심을격려하고의협심을고무하기위함이며, 또한이것은문사나시인이국민으로서마땅히해야하는책무라고주장한다. 이리하여그들의붓은칼과창이태양에빛나는장관을묘사하면서살육의참상은묘사하지않는다. 적국의증오스러움을설파하면서병사의애처로움은설파하지않는다. 전리품이거액임을설파하면서약탈의죄악은설파하지않는다. 일개장군의성공을설파하면서수많은 병사들의수척함을설파하지않는다. 전사戰死의명예로움을설파하면서그이름이당장에소멸됨을설파하지않는다. 국가의광영을설파하면서인민의고통은설파하지않는다. 영토의확장을설파하면서소모되는재화는설파하지않는다. 야만의경쟁을즐기면서문명의파괴는슬퍼하지않는다. 그러고는애국심을격려한다고한다. 국가를사랑하는마음은어찌면격려할수있다. 그러나인류를사랑하는마음은과연어디에존재할수있는가. 강자와승자를찬미하는마음은어찌면고무할수있다. 약자와패자에대한동정은과연어디에존재할수있는가. 야만적전쟁은어찌면장려할수있다. 문명적평화는과연어디에서유지될수있는가. 동물적감정은어찌면진전될수있다. 도덕적이상은과연어디에서유지될수있는가. 그가설파하고옳조리는것이이미진미아니고선도아니고더욱이미를얻을수도없다면어찌문사와시인이책무를다한다고할수있는가. 어찌진정한문학의가치를갖추었다고할수있는가.

그리하여애국심장려를목적으로하는문학이만약성과를올렸다고한다면, 그성과는곧천하의사람들에게전쟁의유쾌함을느끼게하고전사의명예를흠모하게하고수억의재화와수천의생명을낭비하고진보를저해하고학술을위축시키고몇몇무단정치가의공명심을만족시킨것뿐이다. 이른바국위와국광의허영심을만족시킨것뿐이다. 적국에대한증오를만족시킨것뿐이다. 이것은비단순정문학의진가를결여했을뿐만아니라, 타락을표창하는것이다. 신성함을모독하는것이다. 존로버트슨은그의신작『애국심과제국』에서논하기를, “문명적생활과양립불가능한모든동물적천성에서발현되어나온것을최상의문학이라고정의하는것은문학의엄청난치욕이다. 전편을통틀어애정은없고, 있는것이라곤야만적인질투와증오의정뿐이니, 거짓박애로이것을덮는것은결합적정신의윤리상매우열등한형식이다. 문학이인생에서도덕적양식과쾌락의원천이까닭은결코이러한열등한감정을부르짖기위함이아니다”라고했다. 그렇다. 그들이말하는고무와격려에는박애적동정은눈곱만치도없고, 실로동물적욕정을선동하는것에 지나지않는다. 이러한문학은우리나라문학의앞날을위하여결코축하할만한것이아니다.

는기풍이생겨나, 군인이아닌자를마치인간이아닌것처럼본다. 그렇게거만하게 남을업신여기다보면멋대로행동하며사치를부리게되고, 멋대로행동하며사치를부리다보면부패하여타락하게된다. 군인이풍속을퇴폐적으로만드는원인의 하나라는것은유럽각국의정론이며, 예로부터전승국의풍속이순식간에퇴폐하고도의가땅에떨어지는것은오로지군인의권세가과대해지는탓이다. 우리나라에서도월기가아직안정되지않은청년들이병사로입영한뒤, 군대안에서받는가혹한속박의반동으로군대밖에서더욱더방종해져서도회의부패한공기에감염되고, 그런상태로귀가한후에지방의순박한풍속을깨는자가해아릴수없이많다. 하지만그들은의기양양하게“명예있는군인이다. 국가의파수꾼이다”라고말한다. 정춘인민이모두이것을보고군이비난하지않는다. 비난하면비애국자로책망받는다. 아아, 양민을무뢰한으로바꾸었다. 선량하고순박한기풍을거만하게남을업신여기고멋대로행동하며사치를부리는행실로바꾸는것이무슨명예인가. 무슨존귀함인가. 무릇유망한청년들이모두전장의공훈이라는허영에눈이멀어앞다투어몰려가고, 일반인민은스스로비굴하여군인을받들기에바쁘다. 봉건시대의하인과마찬가지라고한다면어찌이것이국가의경사인가. 이것이군인에게과도한명예를주고과도한존귀함을유지하게하여얻은가공할만한결과다. 그렇다. 입영하는병사에게과도하게경례를하는것은잘못이다. 허영이다. 실로나쁜일이다. 하물며정춘인민이모두기꺼운마음에서우러나그렇게하는것이아니라, 단지사이비에국자인정춘관리등의협박적명령에강요당해귀중한시간을버리거나피같은돈을내는데예외가없다. 그리하여입영자일가도경례에보답하는향연을마련하느라부득이하게말도안되는비용에올지않았는가. 이것은심한학폐다. 각종촌의관리와지위있는인사는이이유를깨닫고깊이경계해야한다.

(〈何の名譽ぞ〉,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1 월 23 일)

비전쟁문학

최근에우리문단을향해전쟁을제목으로하고군인을소재로한뛰어난대작을 내도록재촉하는사람이많다. 그리하여작가들자신도이방면으로크게힘을쏟으려하는것같다. 이것이우리문학의앞날을위하여이롭지않다고할수는없다. 하지

아아, 지금의대신, 지금의관리, 지금의원, 지금의국민은다시이글을읽고 과연무엇을느낄지. 저서약문은이와같은취지로만들어졌고, 유신중흥사업, 제반개혁은이와같은정신으로착착실행되었다. 아니, 이것은고금의조종열성祖宗列聖이오래도록일관되게유지하신큰이념이고, 그리하여일단금상이영매한자질을얻어유례없는광휘를발할수있었던것이다.

당시민주주의정치에서활동한세력이파죽지세로내놓은조칙, 포달布達, 보고서등을보면어느하나민의를중심으로하는글자가없는것이없었고, 공의公議와여론이라는말을내걸지않은것이없었다. 마침내보상輔相, 의정議定, 참여參與같은대신조차도한때공선으로임명하기에이르렀다. 얼마나번성한가. 그리하여이것이오늘날우리나라의진보와흥륭이유럽강국과각축할수있게된까닭이아닐까하다가깊은예지觀曄에생각이미치면우리들은항상감개무량해서울지않을수없다.

무릇이른바민주주의를공화정치의전유물로보고군주정치와양립할수없다고믿는자가있다면그것은커다란잘못이다. 요순은실로민주주의자였다. 우 (禹) · 탕 (湯) · 문 (文) · 무 (武) 도민주주의자였다. 예로부터군주가가장완전하고가장열심히민주주의를유지하고대표하고실행한것은우리일본에미치는예가없다. 우리만세일계의회황위寶祚가천하宇內에탁월하고무궁무진하게번성하는까닭이어찌우연이겠는가.

그렇다. 이것을민주주의라명명할수없다면, 충군주의라부르는것도가능하다. 박애주의라부르는것도가능하다. 다만중요사항萬機에대해민의를중심으로하시는서약문, 기도다카요시가일컬은, 백성과함께있고백성과함께지키는취지와정신은명백히일원과그빛을다투는데, 이것이우리의국시요국체다. 이것에등을돌리고이것을기피하는자는폐하의죄인이다. 그리고조종열성의죄인이다.

(〈日本の民主主義〉,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5 월 30 일)

외교상의비입한국

나는우리일본이외교상으로는여전히비입헌적·전제적영역을탈피하지못했음을슬퍼한다.

블라디미르는최근에청일전쟁이후러일관계를평하여“러일두나라국민의절박한감정에서생겨나는위험은, 다행히두나라의충의의마음이작렬함으로써배제될수있었다. 두나라에서군주라는한마디는당장두나라국민이법률로기꺼이따른다. 차르와미카도도평화와우애를희망하므로러일간에결코충돌이있을우려가없다. 총명한군주가결정하는것은감정적이고무책임한인민보다도훨씬달견達見이다.”라고언급했다(『태평양상의러시아』, 329면). 아마도그러할것이다. 위로총명한천자가있고아래로충성스러운인민이있어서, 외국과평화와우애로교류하는것은물론깊이경야할만하다. 하지만한편으로는다소우려할만한점이없지않다. 나는천황에게우리헌법에서선전강화권이있음을안다. 그리고군주독점외교가우리헌법의자구에도존재하지않음을안다. 더욱이우리국민이대권분배를바라지않는다는것을안다. 하지만이와같은나라의외교가항상국민의의사를도외시하고전혀알려지지않는다면, 이것은과연만세를통해지킬만한제도인가. 이것이과연각국의국민적외교와대적할수있는것인가. 이것을과연문명적외교라할수있는가. 이것은그정신에서비입헌적외교가아닌가. 이것은전제적외교가아닌가.

우리황상은영매하고입헌적군주로서자질이풍부하여공의를중시하고여론을취함에소홀함이없다. 우리국민이마땅히안심하고저절로천황의법을따라야한다는것은블라디미르가언급한대로다. 또한랴오둥遼東반도반환건과같은것은한편의조치으로두나라간의위험을배제했다는것도블라디미르가언급한대로다. 하지만우리당국대신들은우리천황의예지를이해하지못하고항상국민의의사를도외시하고국민이전혀알지못하게하고있다. 다시말해우리국민의눈을가리고귀를막아비밀을지키기위하여항상전제적, 비입헌적, 비문명적외교를펼쳐서국가가크게폐해를입은것은반론의여지가없는사실이다. 나는여기에국명한예를한두가지들고자한다.

시모노세키下關조약당시우리국민은이토히로부미전권등이과연어떠한담판으로무엇을요구하였으며그조약이어떠한결과를낳을지불행히도오래도록알지못했다. 다만우리황상이이조약을칭찬한것을듣고그위대한성과를상상할뿐이었다. 그런데전승국이조약지정자인일본국민이조약에대해모르고있을때, 패전국인청국인과국외자인유럽인은이미이것을들을수있지않았는가. 보라. 저단판의기록과왕복문서는실로「베이징텐진타임스」가처음으로천하에공개하지않았는가. 우리정부가이것을발표한것은이미기사가강호에나돌고오랜시간이지난후가아닌가. 만약「베이징텐진타임스」가전하지않았다면, 우리들은영원히세부사항을알수없었을지도모른다. 나아가삼국간섭문제가일어나자, 우리들은겨우외국전보와외국신문을통해그사정을상상할뿐이었는데, 문제가진행중이었을때는물론이국랴오둥반도반환조치가공포되어서국이완전히종료된뒤까지도우리정부는우리신문잡지가이면의사정을보도하고평론하는것을허락하지않았다. 작년의화단창궐이극에달했을때, 우리들은오로지서구신문으로영국과일본두나라가교섭했음을알았다. 이어서영국이의원공문서로일본에출병을

(〈斷じて名譽に非ず〉, 「萬朝報」 1900년(메이지 33년) 9월 27일)

후대받는병사

최근에신병입영시기가올때마다입영자를낸각정촌町村인민은고액의비용을들여장엄한의식을갖추고화려한깃발을세워행렬을보낸다. 또한송을받는신병의일가도고액의비용을들여성대한향연을베푸는데, 이에응하는사람이도도하바람을일으킬정도로많다. 우리들은이것이단연코국가의경사가아니라고생각한다.

그들은생각건대, 군인이되는것은명예다, 축하해야한다, 군인은국가를지킨다, 군인에게경례해야한다고한다. 그렇다. 우리들도군인이명예가아니라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군인에게경례할필요가없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군인이국민들의여러직업에비해더욱더명예롭고, 나아가깊은경례를받아야하는자라고여긴다면, 이것은큰오류다. 비단오류일뿐만아니라, 이오류에서생기는폐단은국가와사회의진보의기운을저해하는커다란요소임을알아야한다.

고대에무사가능·공·상에비해많은명예와권리를누리는것을지당한일로받아들인것은봉건적사상, 미개적사상, 야만적사상이아닌가. 그리고그것이부정하고의롭지못한것임을인정한오늘날, 정치적으로사회적으로사민의권리와무가평등함을인정한오늘날, 군인의명예와지위와권리가유독보통국민과다를이유가있는가. 그들은국가를지킨다고칭송받는다. 하지만국가는군인만으로는서지않는다. 군인이국가를보호하는것을명예라고한다면, 군인을부양하는농·공·상도마찬가지로명예가아닌가. 뒤에대비하는고양이는과연그집의하인보다도명예로운가. 도적에대비하는개는과연그집의하인보다도명예로운가. 우리들은아직군인이검과총을가지고있다고해서보통인간이상의명예와존경의미하는이유를발견하지못했다.

하지만국민사이에무사를존엄하다고보는야만적사상이아직완전히사라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 무력으로천하를얻은번벌의원훈들이일찍이병마兵馬의권한을도당의수중에모아, 자신들의위력과복덕福德을과시하는도구로삼은지오래다. 심지어청일전쟁에승리하고나서우리나라군인의세력은더욱더커져이제거의절정에이르렀고, 국민들은국가는곧군인의국가라는생각으로왔다투어군인의발아래엎드리게되었다. 그결과, 군인들스스로도거만하게남을업신여기

호전적인국민인가

우리일본육해군의장병들이전쟁에뛰어나다는것은, 참으로우리국가와국민의명예다. 예로부터전쟁에뛰어난자는대개전쟁을좋아하기때문에세계각국이모두우리국민을가리켜전쟁을좋아하는국민이라고하는것같다. 하지만전쟁에뛰어나다는것과전쟁을좋아한다는것은완전히다르다. 전쟁에뛰어난것은명예다. 전쟁을좋아하는것은단연코명예가아니다.

군대는살인기계다. 천하의부름소비하는도구다. 생산력을고갈시키는도구다. 군인의허영을증대시키는기초다. 무단정치를유발하는요인이다. 인심이부패하고풍속이퇴폐하는원천이다. 전쟁에뛰어나기때문에무위武威가국광國光을발하는일은있어도, 전쟁을좋아하고도나라가망하지않은예는아직없다. 스파르타는전쟁을좋아하는국민이었다. 하지만그명예는아테네가자유공화정치로써철학, 문예, 미술, 도덕에기여한공적이라는불후의명예에미치지못한다. 로마의명예는정복한땅의크기에있는것이아니라그문명의찬연함에있었다. 그런데그들이싸우게되자그문명을다른세계에이식하는것이아니라, 오로지노예수만늘릴뿐이었다. 많은노예, 많은신하를얻기위해싸운마음은바로그들의문명을멸망시킨원인이아닌가. 프로이센의명예는폴란드를분할하고오스트리아와싸우고프랑스와싸운데있지않고독일의국민적통일을완수한데있다. 일반국민이다수의귀족이나공후公侯의질곡을벗어난데있다. 그리하여그들의전쟁은처음으로명예로운전쟁이되지않았는가. 러시아의무위가세계를제압하는까닭은전쟁을좋아하기때문이다. 러시아는유럽각국에비해전쟁경험이매우적다. 그나라는항상동북의무인無人의땅에서자연과투쟁함으로써오늘날의크기를이루지않았는가.

전쟁이명예로울수있는경우는국가의문명을위한이익이손해에비해크게있다. 적어도보상하는데있다. 적어도이것을명심하는데있다. 청일전쟁은동양의영원한평화를위함이라고일컬어진다. 이와같다면우리들은우리의출병이명예로운것임을수긍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한사람의허영을만족시키고한사람의야심을채우기위하여수많은목숨, 수만의재산을희생하고, 승전해도전전히장래의부패와많은부채와인민을도탄에빠뜨리는화를남기는것은결코용서받을수없을것이다. 맹자가일컬어“문왕이한번노하여천하의백성을편안케하였다”고했다. 그렇다. 전쟁은반드시천하의백성을평안케하지않으면안되며, 천하백성의자유를빼앗고행복을빼앗고생명을빼앗고재산을빼앗는전쟁은단연코명예가아니다.

최근에일시적감정과비루한허영심에들떠전쟁을좋아하는자가있다는소리를들었는데아마도사실이아닐것이다. 우리일본은군자의나라다. 인도의나라다. 전쟁에뛰어난지언정결코전쟁을좋아하는국민이아님을믿는다.

촉구하고재정보증도서겠다는공문을공개했다는전보가도착하자, 경시청은우리신문기자들에게그것을보도하지말라고엄중히명령했다. 이튿날금지를풀었는데도여전히당국은백방으로이주장을말살하려고하지않았던가. 무릇외국의원공문에발표된사실을굳이우리신문에싣는것을금지하는처사는오�히려웃음거리로보이지만, 이것은엄연히사실이다. 외교문제에서서구각신문은잘알고보도와고비평하고논할자유가있는데비해, 우리나라의각신문과우리국민은결국이자유를누리지못하고우리나라는항상도쿄에서일어난사건을외국신문을보지않으면알수없거나알아도말할수없는처지에놓여있다.

저스틴매카시는일찍이영국외교를논하여“영국이엄정한입헌제도아래통치되는입헌국임을누가감히의심하겠는가. 하지만외교정책을행하는데완전히국민여론을도외시하는것을보면유럽대륙에서몹시전제적인정부라해도영국정부처럼심한예를보지 못했다. 영국정부가어떠한외교정책을취하고있는지는비단보통인민뿐만아니라중의원의원도관리외에는전혀알수없다. 관리들이외의의원은보래질문을할권리가있다. 하지만항상임시방편적답변을들음뿐, 정부관계자는대개정부가상세한설명을할시기가되지않았다고말하지않은적이없다”고했다.(『우리시대의역사』 말권, 398 면). 또한“보통인민이모든외교사정에능통할필요는없지만, 각종외교문제를쉽게알수없는것은, 정부의여러수령이그들에게, 아니의회에있는대표자들에게조차특별히고지하지않기때문이다. 외교에관한실상에서보면우리들은영국이대륙의다수국가들보다도훨씬비입헌국임을느낀다”고언급했다(위의책 402 면). 매카시는수단둔쿨라원정의일거에대해이러한말을했던것이다. 그런데보라. 당시둔쿨라출병건이결정되자, 영국하원에서는질크나존폴리등의질문공세, 체임벌린이나벨푸어의설명반박, 연일이어지는용쟁호투의장관이극에달했다. 영국의외교는비밀주의가심하다고할수는없다. 이번청나라사건이일어났을때영국의회외교의광경은필기를읽는것만으로도이미피가용솟음치고살이떨리는느낌이있었다. 또한영국정부는매번의원공문을발표하여외교문서를공개했고, 외무장관은해마다시장市長의연회에참석하여외교방침을공개한다. 영국외교는심하게비입헌적이라고할수없다. 하지만매카시는영국외교를단죄하면서, 대륙의전제정부들보다훨씬비입헌적이라고했다. 만약그가우리일본정부의행동을봤다면과연뭐라고했을까.

나는일본외교를전제적이라거나비입헌적이라고단정하는것은초점을크게빗나가는것이라고민다. 외교에어느정도까지비밀이필요함은물론이다. 하지만한편으로는외교는반드시국민적이지않으면안되며, 국민의신임과후원이없는외교는위험하다. 나폴레옹대제와나폴레옹 3 세의말년의외교에는이것이없었다. 그들의외교는국민의외교가아니라국민을미혹하기위한것이였다. 그결과전복되어국민이등을돌리지않았는가. 매카시는또한“(이집트원정에서) 전체적으로특히우리들의이목을끈것은많은영국민이이문제의시시비비와이해득실을알지못하는것은마치청나라민이청일전쟁의이해득실에무관심한것과다르지않다. 우리들은전국민이통치자의외교정책에완전히몽매하다는것이매우위험

한것임을 믿는다”고 했다(위의책, 401 면). 그렇다. 국민을 소외시키고 무지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국가의 존망과 안위安危에 관련된 커다란 문제에 대해 국민이 항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보도하고 평론할 수 없다면, 지금의 청나라인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비단 국민의 큰 치욕일 뿐만 아니라, 외교당국에 대한 신임과 후원을 전하기 대할 수 없게 한다. 이보다 더 커다란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제 동양의 풍운은 점점 더 거세져 우리나라도 각국 외교의 소용돌이에 휩쓸린다. 나는 정부당국이 신속히 전제적이고 비입헌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적·입헌적 외교를 시도하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첫 번째 수단으로 적어도 공문서 발표, 외교 방침 연설과 신문 잡지에 대한 비밀 정도를 되도록 감소시키는 것 등은 가장 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감히 당국자의 숙려를 촉구한다.

(〈外交に於ける非立憲國〉, 「日本人」 1900 년 (메이지 33 년) 10 월 5 일)

재정의 대혁신

군비가 충실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교육이 보급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외교가 부진하다고 말하지 말라. 실업이 위축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재정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라. 무릇 한 나라의 정치 기관의 주축인 재정에서 확고한 이념이나 기초가 없고 계획 방침이 항상 동요하여 일정하지 않아, 당국자가 단지 호도하고 미봉하기에 급급한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는 다른 기관들의 발달과 진작을 바랄 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머지않아 일대 곤경에 처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것이야말로 걱정이 깊어지는 일 아닌가.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마쓰카타 마사요시 백작(松方正義, 1835~1924)은 지금의 재정을 ‘짜맞추기 재정’이라고 했다. 둘러막기다. 전후의 경비는 해마다 팽창하여 전쟁 이전에 8 천만 세수는 불과 5 년을 거치는 사이에 당장 2 억 5 천만이라는 거액이 되었다. 그런데 격변에 대처하는 데 정해진 큰 방침이나 계획이 없고 단지 둘러막기로 분주할 뿐, 상금을 유용하고 외채를 모집하고 필사적으로 5 개년의 토지세를 늘리고, 간장, 우편, 전신 등의 각종 세금을 늘리는 것을 보면 추태가 극에 달했다. 더욱이 이 일로 내각이 서너 차례 경질되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의회에 재정의 기초가 견고하다고 공언

했다. 견고한가, 참으로 견고한가. 둘러막기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필요성은 끝이 없지만, 수단에는 실로 한계가 있음을 어찌할까. 만약 오늘날과 같은 식으로 지나간다면 정말로 수습할 수 없는 대파탄을 겪을 것이다. 일정한 직업도 없고 생산도 없이 항상 고리 고리의 돈을 빌려 빚에 쫓기면서도, 나가서는 좋은 옷과 주색에 빠져서 도박을 일삼고 기양야해서 입만 벌리면 만금의 거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른바 투기꾼의 생활을 흔히 보고 듣는다. 얼마나 위험하냐.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의 실상이 이와 닮지 않았는가.

우리 재정이 이와 같은 까닭은 일정한 이념이나 방침이 서지 않은 데 있다. 우리 재정의 수완은, 아니 우리들의 지위와 권력은 각 종 주식의 등락을 미리 알거나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금리의 고저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만히 세운 대기大機를 간파하고 사회의 안배를 헤아려 한 나라 재정의 큰 이념과 방침을 세울 자질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그런 탓에 그들이 하는 일은 결코 과세가 공평한지 불공평한지를 묻지 않는다. 산업의 미래가 유익할지 불리할지를 묻지 않는다. 인민의 부담이 편중되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들이 표준으로 삼는 것은 한때의 구멍을 메우면 족했다. 짜내기 쉬운 것을 짜내면 족했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면 족했다. 이리하여 토지세, 간장, 우편, 전신, 가옥, 담배, 새로 생긴 복잡한 세목稅目을 계산하고는 재정의 능사는 끝났다고 한다. 한 나라 정치의 능사는 끝났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간을 뇌물, 매수, 투기, 중상重商 보호를 위해 낭비하고는 반성도 안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재정이 하는 것은 임시변통이다. 둘러막기다. 찌꺼한 방식이다. 눈속임이다. 국고가 다 할 날을 기다려야 할 뿐이다.

한편 각 정당들의 재정론을 보면,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념이 없고 방침도 없다. 어떤당은 단지 정부당이라는 이유로 칭찬할 뿐이고, 또 어떤파는 단지 반대파라는 이유로 반대할 뿐, 다른 것은 모른다. 이로써의 견과 운동이 항상 이리저리 둘러막다가 모순이 반복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천하의 신용, 국민의 동정을 잃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당이 본령으로 하는 정신을 완전히 상실하여 커다란 산송장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앞으로의 정국을 말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군비라고 하지 말라. 교육이라고 하지 말라. 외교라고 하지 말라. 실업이라고 하지 말라. 당장 우리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큰 이념과 방침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국가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러운 것임을 느낀다. 아아, 어떠한 위대한 수완가가 능히 이것을 말할 수 있을까.

(〈我財政を如何せん〉,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4 월 10 일)